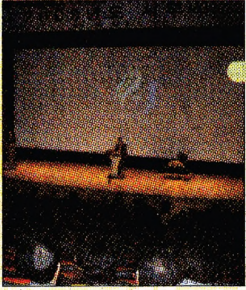


지면안내

2면 보도



2009년 기축년을 맞아 아라뮤즈홀에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이 열렸다.

3면 보도



BTO아파트, BTL생 활관, 국제언어문화 교육센터 등 캠퍼스에 건물 신축 붐이 일고 있다.

5면 7대뉴스



제주대의 지난 2008년을 되돌아 보고 7가지 중요 뉴스를 뽑았다.

10면 기획



새해를 맞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을 건네는 자리를 마련했다.

12면 새로운 UI



제주대가 교육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제3창학의 원대한 꿈을 담은 새로운 UI를 선포했다.

2009 기축년, 희망의 문을 열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자년(戊子年) 한 해가 저물고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경기 침체의 한파 속에서 대학생들의 희망 잃은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새해 첫날에 맞는 해돋이의 감동은 남다른데다. 바로 2009년 새해에 거는 화합과 희망이란 벽찬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난 한해 어두운 면면들을 거울삼아, 유유자적의 여유와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소의 해처럼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서로 화합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제주대학교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 넘치는 대학, 서로 믿고 신뢰하는 대학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됩시다.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09학년도 제주대학교의 더 큰 발전을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림 강동언, 미술학과 교수,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위원장

<약력>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 세종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전공 졸, 제주도미술대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서울미술대상전 심사위원 역임

공고 제 총추위-1호

제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출 선거일 등 공고

2009년 1월 21일 실시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
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인)

1. 선거명: 제8대 제주대학교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
2. 선거일: 2009년 1월 21일
3. 선거권자: 선거공고일 현재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전임교원과 직원
4.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가. 기 간: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2일간)
[매일 09:00부터 17:00까지]
나. 장 소: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또는 제주대학교 전자문서시스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게시판
- 다. 열람권자: 선거권이 있는 자
- 라.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에 오기 ·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총장임용추천위원회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5. 선거인명부 확정일: 2009년 1월 14일

6. 선거후보자 등록신청

가. 서류교부: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매일 09:00부터 17:00
까지]

※ 학내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공지된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함.

나. 등록기간: 2009년 1월 7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2일간)

[매일 09:00부터 17:00까지]

다. 서류교부 및 접수장소: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사무실

(대학원동 2층)

라. 자격: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7조의 피선거권을 갖는 자

마. 제출서류

- 1) 선거후보자 등록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 2) 선거후보자 이력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 3) 경력증명서 1부
- 4)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CD 포함)
- 5) 사진 2매(명함판)
- 6) 선거대리인 위촉장 1부
- 7) 기탁금납부증명서 1부
- 8) 발전기금 출연각서 1부
- 9) 주요연구업적 및 연구활동 목록 1부
- 10) 주민등록 등본 1부

바. 등록방법

- 1) 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등록하여야 함. 단, 대리등록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탁금에 관한 사항은 제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14조에 따름.

사. 선거후보자 기호추첨: 2009년 1월 9일,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첨하여 선거후보자 기호를 부여함.

7. 선거운동의 방법

- 가. 소형인쇄물
- 나.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 다.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

8. 소형인쇄물의 제출기한 및 수량 · 장소

구분	규격 및 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	비고
소형인쇄물	별지 제11호 서식	인쇄본 900부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사무실	1월 14일 17:00까지

※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선출 시행세칙 제13조(선거운동)
②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을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위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발송하지 아니한다.

9. 후보자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가. 공개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차: 2009년 1월 15일 14:00~ 국제교류회관

나. 공개토론회(상호토론) 및 합동연설회 일시 및 장소

- 2차: 2009년 1월 19일 14:00~ 국제교류회관

10.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투표시간

투표소명	투표장소	투표시간	비고
총장후보자 추천 선거투표소	국제교류회관(제1투표소) 교육대학 4층 회의실(제2투표소) 대학병원 3층 회의실(제3투표소)	1차 투표 09:00~10:00 2차 투표 13:30~14:30 3차 투표 18:0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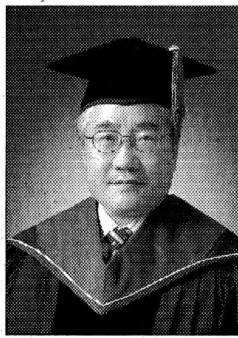
11.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개표소명	개표장소	개표할 투표구명	비고
총장후보자 추천 선거투표소	국제교류회관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TEL 754-2028~9)
또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TEL 722-2828)에 문의하기 바람.

◆고충석 총장 신년사

“시대의 위기는 발전의 기회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0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날인 어제 우리 대학 캠퍼스에는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새해 첫날 눈이 쌓이면, 상서로운 운인 사설(瑞雪)이라 한

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축년 제주대학교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 가족이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송년사에서 저는, 무자연을 '제3 창학의 원년'이라고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3 창학'의 목표는 바로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 진입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이야말로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 씨앗을 뿌렸고, 우리들의 '희망'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새해인 2009년은 바로 그 '희망'을 향해 돌진하는 해라고 정의합니다. '제3 창학'의 목표인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 진입을 위해 출항해야 합니다. 기적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뜻을 높게 올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통합대학이 출범한 이래, 새로운 가족인 교육대학도 우리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수의과대학도 이제 기틀을 잡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준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축 중인 제주대학교병원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개원할 예정입니다.

조금 미진한 과제가 있다면, 인문대학 2호관과 해양과학대학 3호관의 조기완공입니다. 공과대학 4호관은 중앙정부와의 예산 절충을 통해 공기를 1년 6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탄력으로, 인문대학 2호관이나 해양과학대학 3호관도 올해 내에 반드시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교양학부 동도 올해 내에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야 합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동인 경우도 늦어도 2012년까지는 끝마쳐야 합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교류관도 올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수의과대학 건물 문제도 그 방향성만큼은 올해 내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간호학과와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시설인 운동장도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체육관과 도서관의 리모델링도 착수해야 합니다.

이들이 시설 부문 즉 하드웨어적인 과제라면, 소프트웨어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로스쿨·메디컬스쿨·교육대학·수의과대학·예술학부 등이 연차로 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와 규정들을 대폭 손질하고, 교체 주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연구부문의 수월성을 더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학술진흥지원 등 유인체제도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에 걸맞게 교직원들의 복지체제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이들

소프트웨어 부분은 올해 내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기금이나 R&D 자금 등 외부자원 유치에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로 577억원에 누적된 발전기금이나, 지난 1년 한 해 동안 576억원을 넘어서 R&D 자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바로 발전기금 1,000억원, R&D 자금 1,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과제들은,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가치를 높이 치켜든 '제3 창학'의 정책과제들입니다. 2009년 올해에 그 골격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졸라매는 심정으로 올해를 시작합니다.

'제3 창학'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킨다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대학상징마크와 UI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상징마크인 경우, '정'의를 상징하는 햇불과 'Jeju'의 영문자 약자인 'J'자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학을 상징하는 'U'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닥의 햇불은 바로 대학의 사명인 '교육, 연구, 봉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대학의 위상과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지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제주대학교를 나타내는 영문표기도 'C-h-e-j-u'에서 'J-e-j-u' 즉, 'Jeju National University'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도메인도 'J-e-j-u-n-u-a-c-k-r'로 바뀝니다. '제3 창학'의 가치에 걸맞게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여러 얼굴들이 달라집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송년사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국내외 환경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국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금융위기 하나로 전 세계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도,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대학의 존립기반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요증처럼 강하게 제시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국제적으로는 경제대국들의 서열이 뒤바뀌고, 국내적으로는 재벌이나 기업들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학사회인 경우 명문대학 순위 또한 재편될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위기'이자 곧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강할 때, '확실성'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집약시킬 때, 우리들의 꿈인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 진입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9년 새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척 많습니다. 새해 첫 날, 우리 캠퍼스를 하얗게 만든 사설(瑞雪)의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한 해에도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일
제주대학교 총장 고충석

‘BK21 해양 바이오사업단’ 10억여원 지원

‘2단계’ 두뇌한국(BK)21 신규사업에 이제의 교수팀의 ‘BK21 친환경 해양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돼 연 2억6천만원씩 4년간 총 10억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국제자유화 도시와 Global 시대에 걸맞은 탁월한 국제

감각과 이론·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란 비전을 조준해왔다. 대학원생을 지원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해양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신진연구인력(Post doctoral fellow 또는 연구교수) 1명을 채용, 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 국제학회 참석 및 산업체 견학을 지원하는 등 대부분이 인력양성에 투자될 예정이다. 김지현 수습기자

직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이 대학생 사회봉사활동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기관간의 학술과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봉사 공동사업의 추진 △협약기관간의 관계자 교육과 연수 △대

학생들의 현장실습(봉사활동)과 취업기회 제공 △소장도서와 자료의 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희철(무역학과 교수) 원장은 “학생들이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함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회봉사활동이 취업에 있어서 전공과 관계없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학업

과 더불어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체결은 지역사회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열린 교육을 실행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신체적·심리적 역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결했다.

강소진 기자

기축년 출발 알리는 시무식 개최

“올해 큰 변화 있을 것, 구성원 모두 뭉쳐야”

고충석 총장 시무식서 강조

제주대학교는 2일 오전 아라무즈홀에서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무식은 고충석 총장을 비롯, 처·국장과 교수, 전 직원의 참석 아래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새로운 UI(심볼마크, University Identity) 선포식도 열렸다. 시무식이 끝난후 교직원들은 서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신년 인사를 주고받았다.

고충석 총장은 신년사에서 “대학을 둘러싼 환경도 ‘국립대학 법

인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자칫 실수하면, 대학의 존립기반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요동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총장은 이어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힘을 하나로 집약시킬 때, 우리들의 꿈인 ‘전국 20위 이내 명문대학’ 진입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아라무즈홀에서 2009년도 시무식이 진행됐다.

2009년도 등록금 동결 확정

대학운영 내실화와 예산절감 통해 재정 부족 충당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제주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제주대는 경제한파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기성회비(평균 340만원)가 전국 거점국립대학 기성회비(평균 394만8000원)보다 54만8000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신입생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174만1000원(입학금 17만8000원 제외), 공학·예능계열대학 231만9000원, 이학체육계열 213만3000원, 의학·수의학 228만원이다.

제주대는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과 취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부족분은 대학운영 내실화와 예산절감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재정과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패일수록 대학이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과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난국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수강신청 두 차례나 연기

공지에도 명확한 설명없어 학생들 금금

수강신청 기간이 두 차례나 연기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은 특히 왜 늦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공지사항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학사관리과는 제주대 홈페이지를 통해 ‘2009학년도 교과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0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산입력 일정을 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교과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문구는 이제껏 학사일정에 맞춰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에게는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수현(경제무역학부 1) 학생은 “특별한 연락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기돼 당황스럽다”며 “새 학년을 계획세우고 준비하려 했으나 2월이나 수강신청이 된다고 하니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재광 학생도 지난달 22일 아라무즈홀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1차 연기, 12월 초에서 23일로 2차 연기, 수강신청 하루 전 2월 중순으로 3차 연기”라며 “양해 바랍니다는 말 한마디로 엉성한 행정을 무

마하려는 생각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관계자는 “당초 학사일정에 따라 12월 초 실시할 예정이던 수강신청 기간이 교과과정 전면개편에 따른 작업일정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12월 중순에서 다시 2월 10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2월 10일로 연기된 만큼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매해 2월에 걸쳐 수강신청을 하던 학과 군이나 학부 입학자의 전공배정이 결정된 학생들과 더불어 2009학년도 1학기 전과 합격자들을 위한 수강신청도 2월 수강신청 기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진 기자

통역대학원, 연구과정생 9일까지 모집

통역대학원(원장 김진희 영어영문학과 교수)이 오는 9일까지 연구과정생을 모집한다.

2009학년도에는 1년 과정으로서 한영과, 한중과, 한일과 연구과정생을 20명 모집하며 입학자격은 학사학위소지자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과정은 총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으며, 이 중 6학점은 통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시 이수학점으로 인정된다.

오는 16일에는 전공외국어 번역필기시험과 면접고사를 치르게 되며, 22일에는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통역대학원 홈페이지에(http://gs.cheju.ac.kr) 게재됐다

한편 통역대학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통·번역자면 인구를 확대하고, 외국어 실무와 관련 과목 또는 특수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2009학년도 3월 학기부터 연구과정을 개설한다. 문의=754-2431

강소진 기자

“이젠 도서관 좌석관리도 신기술 도입”

제주대와 ㈜이노소프트기술(대표 최승일)이 산학협동을 통한 도서관 좌석관리시스템 개발 양해각서를 지난달 24일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개발되는 좌석관리시스템은 U-IT 신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RFID칩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관리시스템을 지향한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RFID칩을 이용해 도서관 이용 시 자동으로 체크, 열람실의 이용 현황과 출입상황을 관리자가 알 수 있게 한다. 또 인터넷

을 통한 좌석예약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내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좌석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인 한정된 열람석 이용률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사 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아이টে็ม은 반복되는 도서관 좌석문제를 정보통신원과 도서관이 3년 여간 고민하다가 교안해

낸 것”이라며 “앞으로 시스템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편리성을, 대학에는 큰 이익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 개발은 정보통신원(원장 이계명 전기공학 교수)과 도서관(관장 송병식 경영학과 교수)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이노소프트기술이 맡았으며, 이후 판매 이익금 중 20%는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종건 기자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등 캠퍼스 건물 신축 붐 교직원·학생복지시설 BTO아파트, BTL기숙사 준공 눈앞

인문대 2호관, 해양과학관, 종합운동장 등도 올해 마무리
사라교육관, 교육대학 전면리모델링 등 잇따라

제주대학교에 건물 신축 붐이 일고 있다. 2009학년도에는 국고지원금이나 대학발전기금,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 기부받은 산학협동기금을 재원으로 부족한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신축으로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는 물론 민생적인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 우리대학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아라뮤즈홀이 있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준공과 함께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도 이뤄지고 있어 올 한해 아라캠퍼스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제주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에서 문화공원과 국제화 교육 등이 가능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를 준공했다.

연면적 1225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진 이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에는 450석 규모의 문화공연이 가능한 아라뮤즈홀과 최첨단 국제화 교육시스템을 갖춘 8개의 강의실, 카페테리아, 인터넷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천정에 서 외부로 연결된 전망계단을 통해 국제교류학과 학생생활관, 외국어교육원과의 접근이 쉽게 된 건물 구조가 눈길을 끈다.

경영사업단 관계자는 “각종 예술 공연과 수준 높은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개최와 국제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문화 및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교직원복지시설 BTO아파트
지난해 12월 23일 연면적 3967평에 지상 4층 5개동으로 완공한 교

직원복지시설 BTO아파트는 오는 22일 첫 입주자를 시작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BTO아파트는 43평형 8세대, 44평형 4세대, 19평형 64세대, 10평형 8세대, 9평형 48세대 등 총 16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교직원 보육시설과 편의점, 세탁실 등의 복지 및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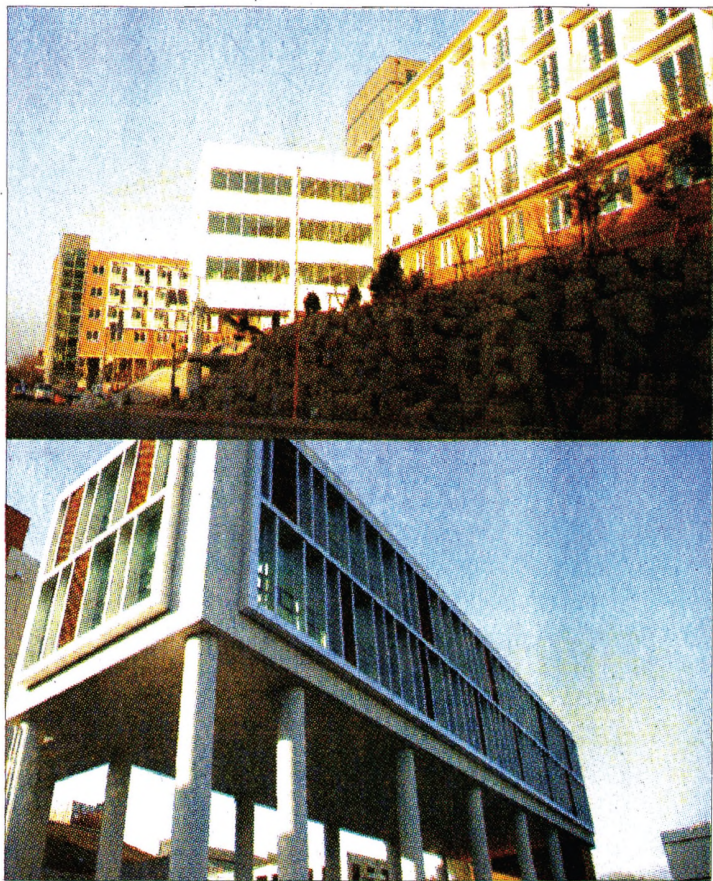
이 BTO아파트 건립은 민간기업이 제주대학교가 빌려주는 용지에 교직원 아파트를 건립한 뒤 대학에 아파트를 기부하고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소유해 건설비 및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BTL생활관
오는 3월 개관하는 민간투자방식(BTL)의 새 학생생활관은 최첨단 시설과 아늑한 공간으로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 최고의 안식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라캠퍼스 후면에 신축되고 있는 새 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177평에 312실 624명 수용규모로 건립된다. 새 기숙사는 숙박 위주의 기존 기숙사를 탈피, 2인1실의 재학생 기숙시설은 물론 체력단련실을 비롯해 세미나실, 컴퓨터실, 휴게실, 세탁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기숙사가 신축되면 우리대학의 학생생활관 수용인원은 1658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이 BTL생활관은 민간기업이 기숙사를 건립하면 대학이 운영기간 20년 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을 위한 우레탄 설치와 인조잔디를 심고 있는 종합운동장



위- 오는 3월 개관하는 민간투자방식의 BTL생활관. 아래- 문화공원과 국제화 교육이 가능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은 공사가 한창이다. 제주대학교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비 10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최신헌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심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종합운동장은 오는 2월말까지 국 제공인 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시설공사가 후 오는 4월에는 우레탄 육상트랙과 다목적구장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도민들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지난해 준공된 공과대 4호관 옆에 위치한 해양과학관은 국 고에서 자금 22억원을 지원받아 올 해 내에 완공하고, 인문대 2호관은 국고에서 52억의 지원을 받아 건착 중이며 노후화된 법대대학 강의실 은 내부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미나실과 회의실, 연구실, 자료실로 구성된 감공출연 연구사업단 내부시설 보수공사도 벌이고 있다.

사라캠퍼스도 대학통합 이후 건물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지난 1972년 완공된 사라교육관은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까지 전 층을 리모델링하고, 중축공사를 벌이는 등 사라캠퍼스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와 함께 겨울방학 동안 사라캠퍼스 내 학생편의시설과 교육시설에 대한 공사를 벌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복 대기자

교수회·대학본부 ‘공개질의서’ 공방

교수회, “국제언어센터 건립 관련 의혹 밝혀라”

본부측, “한점의 의혹이나 비리 없다” 유감 표명

고충석 총장이 5일 교수회 공개질의에 대해 반박했다.

(재)제주대학교 발전기금 이사장인 고충석 총장과 경영사업단장인 홍성철 상임이사는 5일 오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회의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공개질의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고충석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교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교수회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요청에 대해 그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질의 및 언론사 등에 질의 문건을 배포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발전기금재단은 물론 제주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5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했다.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이 수익계약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우리대학에서 추진한 국제교류학과 및 골프아카데미 시설 건립 사례와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발전기금재단에서 추진하여 약 1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은 신축 건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부시설의 음향, 조명, 설비와 조경, 기계 및 외부마감 등 20여 개 세부 공정에 걸쳐 변경이 불가피 했으며, 7억원의 발전기금을 공사비로 간주하는 것은 발전기금 출연자의 선의를 폄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기성회는



고충석 총장과 홍성철 경영사업단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회 질의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있다.

기체권이 없기 때문에 차입할 수 없어 강원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단법인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서 기체를 하되, 기성회계 예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게 됐으며, 발전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자의 취지를 훼손할 수 없는 만큼 발전기금의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성철 경영사업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교수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홍성철 단장은 “공개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교수회의 공개질의가 교수회장의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교수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공식적행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교수회가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민감한 시기에 선거관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공박했다.

홍 단장은 또 “농협중앙회의 30억원 출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10억원), 현대자동차(4억

원) 및 각계 유지인사들의 발전기금 기탁에 힘입어 건립이 이뤄졌는데, 이같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기부자의 순수하고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어 심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수회(회장 고정표 무역학과 교수)는 앞선 2일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등의 문제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학교계시판과 도내일간지를 통해 공개했다.

교수회는 공개질의에서 △공사를 위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익계약 방식의 타당성 △기성회계 예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발전기금에서 기성회로 채무를 전가시킨 근거와 이유 △농협이 30억원의 발전기금을 납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년간 제주대학교 금고관리권을 부여했다는 의혹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이에 관련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용복 대기자

박물관 ‘민화로 보는 신비의 세계’... 3월말까지

‘민화로 보는 신비의 세계’ 인도·제주 민화전이 박물관(관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과 제주문화컨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전성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주최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3월 31일까지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도 마두바니, 왈리스, 남부지방의 신화주제와 제주의 신화를 민화와 민예품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시회에는 70여점의 민화와 250여점의 신상과 민예품들이 진열된다. 이는 모두 신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로 대부분이 손으로 만든 수제 민예품들이다.

전시품들은 모두 하진희 연구원이 준비한 것으로, 그가 소장한 1500여점 중 일부만을 선별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신화라는 주제로 제주의 민화와 인도의 민화 속에 담긴 신화 이야기를 그림과 민예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



지난해 12월 23일 ‘민화로 보는 신비의 세계’ 전시회 개관식에서 관람객들이 인도 민예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려져 있지 않은 인도민예품들이 다수 전시되는 이번 자리는 인도 문화와 신화를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진희 연구원은 “신화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찾아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방문해 2009년

한 해를 보내는데 신화의 세계를 통한 삶의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진희 연구원은 인도문화와 관련한 서적 ‘여름언덕’, ‘산티미게탄’, ‘천상에서 열린 잔치’ 강물,의 저자이며, 다음달 즈음 인도문화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도문화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박종건 기자

자연과학대학장에 김두철 교수 공과대학장에 이광만 교수 당선

지난해 12월 5일 치러진 자연과학대학 학장 선거에서 물리학과 김두철 교수가 제11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후보자로 당선됐으며, 공과대학 학장 선거에서 전자공학전공 이광만 교수가 제11대 공과대학 학장으로 당선됐다.

제11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선거는 학장후보자 3명이 출마하여 치러진 가운데, 김두철 교수가 30표를 득표하며 최종 학장으로 당선됐다. 제11대 공과대학 학장 선거는 35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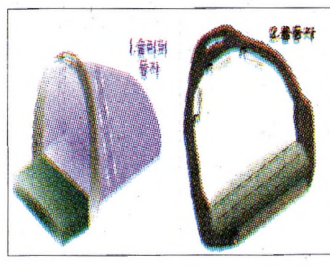
김두철 교수 이광만 교수

득표한 이광만 교수가 최종 학장으로 당선됐다. 김지현 수습기자

창업동아리 GeN-bio 도민발명경진대상 초보자 위한 ‘안정등자’ 아이디어 돋보여

창업동아리 GeN-bio(지도교수 정동기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의 학생들이 출품한 ‘초보자를 위한 안전 등자’가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민발명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초보자의 낙마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발명품은 롤 등자와 슬리퍼등자다.

동아리에서 활동중인 이병훈(동물생명공학전공) 학생은 “발명대회에 참가하면서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다같이 열심히 준비해 받은 상이라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배7십여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공성용(주 KCTV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4일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쾌척했다. 이에 KCTV제주방송은 발전기금으로 총 1억원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강소진기자



창업동아리 GeN-bio가 낙마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발명품. 좌-슬리퍼등자, 우-롤등자.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관찰력만 기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발명경진대회는 우수발명인재의 발굴과 발명역시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강소진 기자

교육대학 학생회장에 부덕준 학생 부학생회장에 이한결 학생

새해에 사라캠퍼스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장에 부덕준 학생(교육대학 미술교육2)이, 부총학생회장에 이한결 학생(교육대학 과학교육2)이 선출됐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돼 단독 출마했던 이들은 지난해 15일 미래창조관에서 열린 사라캠퍼스 학생총회에서 찬성 276(83%), 반대 44(13%), 무효 12(4%)로 안건이 가결,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내 정수기에 종이컵바치’, ‘전산실의 프린터의 효율적 사용도모’와 같은 학생들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공약들을 내세웠다. 김규정 기자



부덕준 부총학생회장 당선자는 “2007년 통합 시의 함꼐했던 일을

덜고 제주대와 화합의 장으로 가도록 하겠다”며 “교내 학우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규정 기자

교육대학 교수들과 협의회 가져

후속이행 촉구

대학 통합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통합조건이행에 관련된 교육대학의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 회의는 지난 9월 30일에 열렸던 회의에 이은 2차 협의회로, 고충석 총장의 주재 아래 양 캠퍼스 교수 협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수협의회에서는 통합지원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 확보와 글로벌 펀드에 직접 문제를 중점시킨다는 내용으로, 교육대학 교수 및 조교 출신 관련 문제와 캠퍼스 이전 등의 장기계획 문제, 사라캠퍼스의



12개 전공 분야를 학과로 변경하는 학칙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이중 언어교육 교사양성체제 구축, 초등영어교육 교사양성체제 구축)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통합조건이행 추진위원회의 총장 발령, 이 회의 내용에 대한 총장후보자들의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 조성 등의 논의가 있었다. 김지현 수습기자

지역인사와 기업, 발전기금 쾌척 이어져

지난해 12월 제주대 발전을 위한 기금모금이 줄을 이었다. 제일동보 고교문중(주 아사히비나루 대표이사, 재외제주경제인협회 회장) 회장의 부인이 지난달 18일 고회장의 유지에 따라 발전기금 1억원을 고충석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기금은 고회장이 생전에 제주대 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3억원 출연을 고충석에게 약속하고 그중 2억원(2007년 5월)을 쾌척 후, 유명을 달리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금액이다.

또 테디베리 골프장의 도네이션을 통해 모인 2천만원이 출연했다. 도네이션 홀이란 테디베리 골프장의 히든홀(18+1) 코스 이름을 말한다. 이 홀은 골퍼들이 모은 돈을 다 돌고나서 성취감으로 가슴이 뿌듯하거나 아쉬워할 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으며 소액기부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라산(사장 현 승택)이 제주대 우수교수와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현승택 사장은 (주)한라산기금사업지원금을 통해 발전기금으로 총 6억 2천 5백만원에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도 총장실에서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44억2천8백7십여만원을 제주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공성용(주 KCTV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4일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쾌척했다. 이에 KCTV제주방송은 발전기금으로 총 1억원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강소진기자

통합 제주대학교 출범 맞아 새 UI 선포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원대한 꿈과 희망’ 표현

영문표기도 ‘JEJU’로... www.jejunu.ac.kr

제주대는 교육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새 UI (University Identity) 선포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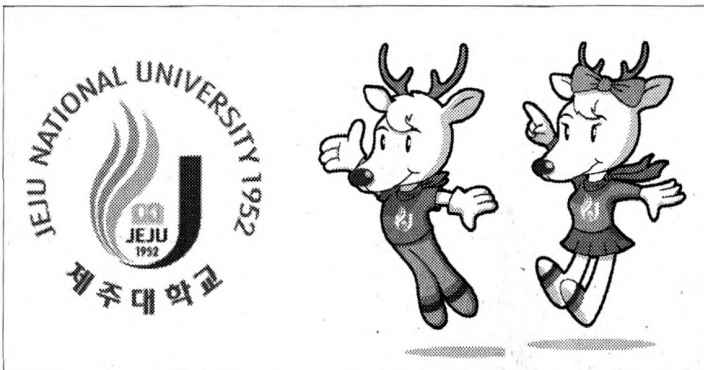
새로운 UI에는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제주대의 도전정신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새 UI는 제3창학의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는 대학 구성원의 모든 염원을 담아 영문 이니셜 J와 정의를 상징하는 햇살을 함께 형상화한 방패형 U자 문장은 대학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울러 책과 햇살은 창학이념인 진리, 정의, 창조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제주를 상징하는 오름과 4만을 둘러싼 파도를 상징하는 물결은 진취적인 제주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제주대는 이와 함께 대학 영문

표기를 ‘Cheju’에서 ‘Jeju’로 변경했다. 당초 제주대는 그동안 사용해온 ‘Cheju’라는 지명이 외국에 널리 알려졌을뿐 아니라 ‘인명 또는 회사 이름은 기존 표기대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개정 표기법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대와 개정 표기법을 따른 지자체 및 공공서, 단체 등의 ‘제주’ 표기가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영문 표기를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Cheju National University(약칭 CNU)’에서 ‘Jeju National University(약칭 JNU)’로 변경되며, 도메인도 ‘www.cheju.ac.kr’에서 ‘www.jejunu.ac.kr’로 바뀐다.



새 UI는 제3창학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는 제주대인들의 모든 염원을 담고 있다. 좌·심볼마크 우·마스코트.

제주대는 앞으로 학교내 각종 표지판과 로고, 대학안내책자, 각종 홍보물 등의 새 UI와 영문 표기를 바꿔나가고, 특히 정부부처 및 각 대학, 유관기관, 외국 교류 협정대학 등에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 등을 설명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총사업비 4억3000만원이 투입된 새 UI 교체사업은 앞서 1952년 대학 개교 이래 1977년 첫 상징

마크와 휘장이 변경된 후 1988년 선포된 UI를 전면교체하게 되었다.

홍보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UI는 제주대의 역사적 자부심과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학교 이미지를 담고 있다”면서 “창의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제주대학교, 제주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복 대기자

김규태 신임 사무국장 인터뷰

“직접 발로 뛰며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취임소감

공모과정을 통해 사무국장에 선발돼 2년간의 계약으로 취임하게 됐다. 나름대로 제주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어떻게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선발해주시는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대학의 운영 방향

첫째로 대학의 궁극적인 의의인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행정을 실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수가 배우고 배움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실천적인 행정을 하겠다. 접수에서 실질적인 처리까지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겠다.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을 위해 사안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필요한 행정처리 과정을 줄일 것이다. 직접 단과대학과 기관을 찾아가 학생과 교수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수용해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겠다.

셋째로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 확대를 통한 어학 능력 향상과 업무처리 속도 효율을 위한 IT 활용 능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와 대학의 글로벌교육에 발맞춰 기본적으로 전화통화정도는 영어로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문서처리와 같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도 중점을 두겠다.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의 질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취업부분의 시야

를 해외로 넓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는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생은 이에 맞는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3주체가 하나가 돼 노력할 때 대학이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대학이라는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500여명 교수들이 오피니언리더이고 학생들과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자신이 맡은 바를 다 잘해 주었을 때 사무국장의 역할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건 기자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87)
△행정사무관(89)
△서기관(98)
△부이사관(05)
△일반직 고위공무원(08)
△인적자원총괄국 정책조정과장,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팀장, 정책총괄과장 등 역임

450여 객석... 아라뮤즈홀 개관



지난 12월 23일 국제언어·문화 교육센터 테이프커팅이 거행됐다.

Ara Muse Hall 개관식이 지난 해 12월 23일 새로 준공된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앞에서 열렸다.

기념공연으로 12월 22일 'Don Pasquale(돈 파스쿠알레)' 오페라 전야 공연이 이춘기 교수(음악학과)의 총감독하에 열렸으며 이어 23일에는 개관식과 더불어 김인규 교수 지휘 아래 제주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김정희 교수, 허대식 교수, 박순방, 심희정 교수의 연주가 이어졌다.

고충석 총장은 개관식 모두발언에서 “준공날짜에 맞춰서 무사히

완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교포들에게 고향을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였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트홀의 건립으로 제주대학의 자부심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Ara Muse Hall은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소화하고 학기 중 수강 인원이 많은 학과목의 경우 대강의실로의 전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건물의 3, 4층은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정 기자

전과신청 오는 21일까지

전과신청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학사관리과를 통해 진행된다. △2009년 1월 현재 1, 2학년인 재학생 △2009년 3월 2, 3학년인 급예정자 △제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2009년 3월 현재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전과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일반학과에서 의예과, 의학과, 수의

학과, 교육대학, 법학부로는 전과할 수 없다. 또한 주야간 학과인 경우는 여석이 없어 전과할 수 없다. 전과는 시험없이 2009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학업 성적순으로만 선발되며, 예·체능계열학과와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실기 및 면접고사를 함께 실시한다.

강소진 기자

편입생 모집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2009학년도 편입학생 모집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접수는 어플라이 벵크(apply.jinhak.com)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오는 16일까지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지원자격의 경우 학사편입학은 정규 4년제대학 졸업(200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한다.

예비소집일은 오는 19일 9시(학사편입학 수의학과는 10시 50분)이며 실기·면접·필기고사 대상 모집단위에 한하여 해당 고사장에서 실시한다. 실기·면접·필기고사는 같은 날 9시 30분부터 해당 모집단위별 고사에서 치러진다.

합격자발표는 다음달 10일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등록은 2월 11일부터 2월 13일 까지다. 또한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17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지현 수습기자

『영주어문』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

국어국문학과가 주축인 영주어문학회(회장 하근 국어국문 교수)에서 발간하는 『영주어문』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영주어문』은 제주도를 연구로 한 학술지 중 처음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올랐다.

영주어문학회는 제주언어 연구는 물론 국어국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문화와 언어, 민속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92년도 창간된 영주어문은 현재까지 총 16권이 발간됐다.

외국어특별강좌

무료 해외문화체험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생들을 위한 무료 해외문화체험’ 참가자를 오는 7일까지 외국어교육관(원장 김선희 영어영문학과 교수)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무료 문화체험은 지난 2008년도 외국어특별강좌 수강료의 이익금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지난 2008학년도 1~6차 외국어특별강좌 중 최다 수강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참가인원은 7명 내외이며 연수 일정은 2월 특별강좌가 종강한 후로 예정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http://flc.cheju.ac.kr)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수강등록확인서와 같이 외국어교육관 3층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생 모집

자연과학대학(학장 변종철)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제1기 자연과학대학 부설과학아카데미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는 제주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주대 자연과학대학 행정실로 입학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해당자)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의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준비과정은 학기당 15주 180시간(주당 12시간)으로 1년 과정이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해 10시에 끝날 예정이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에 대학 행정실로 입학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해당자)를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제 주 대 학 교 교 수 초 빙 공 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 학	학부(과) 전공	인 원
인 문 대 학	영어영문학과 【통사론】 (※ 외국인에 한함)	1
	사학과 【중앙문화사】	1
	철학과 【중앙철학】	1
사 범 대 학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응집물질물리이론】	1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채소시설재배학】	1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성단백질공학】	1
자 연 과 학 대 학	생명과학과 【해산식물분류학】	1
공 과 대 학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실내건축계획】	1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	1
의 과 대 학	의학과 【흉부외과학(심혈관전공)】	1
교 육 대 학	초등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쓰기교육】	1
계	11분야	11

2. 지원자격

가. 공동사항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제주대학교교수자격기준연구실적확인산출기준」에 의해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3) 지원자격을 충족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
- 나. 분야별 지원자격
- 1) 통사론 분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 2) 중앙문화사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에 발표한다.
 - 3) 중앙철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에 발표한다.
 - 4) 응집물질물리이론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학술지에 발표한다.
 - 5) 채소시설재배학, 동물성단백질공학, 해산식물분류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학술지에 발표한다.
 - 6) 실내건축계획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3편 이상을 국내저명 학술지 이상 학술지에 발표한다.
 - 7) 제품디자인 분야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내저명 학술지 이상 학술지에 발표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개인전 2회 이상 또는 국제저명 학·협회, 국내저명 학·협회 2회 이상 또는 공인된 공모전 2회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8) 흉부외과학(심혈관전공) 분야
 - 해당 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3년(2006. 1. 1 - 지원서 접수일까지, 단, 동 기간 내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여 최근 3년)에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자.(단, 석·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지원 가능).
 - 해당과 전임의 수료자이거나 임용일 기준 수료예정인 자 또는 지도전문의인 자(단, 의무병역 기간 중 취득경력증 제외).
 - ※ 지도전문의: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 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

3. 제출서류

- 가.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별지서식) 1부.
-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및 학위기 사본 각 1부.
 -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다. 경력(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근무경력 연구원인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라. 연구실적증 목록 및 연구실적증 공동발표자 목록(우리대학교 소정 별지서식) 각 1부.
 - 마.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증 각 1부.
 - 제품디자인 분야는 관련 학·협회, 주관기관의 발표 실적증 또는 포트폴리오(연구발표 인용 또는 실적증명서 포함) 원본 각 1부.
 - 바. 흉부외과학(심혈관전공) 분야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지도전문의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원본 1부.
 - 사.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4. 서류 접수기간: 2009. 1. 28(수) - 1. 30(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본교에 도착한 것에 한함.
 5. 서류 접수처: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수지원과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jejunu.ac.kr)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으로 게시됨.
 7. 기타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의 작성은 별지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 목록, 연구원 경력(재직)증명서 등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라.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함. (단, 통사론분야 제외).
 - 마.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 바. 특정대학 학사출신자 임용제한(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 제1항)해당할 경우, 제1순위에 하더라도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 및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함.
 - 아.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 자. 지원서 허위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에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차. 심사결과에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 가. 임용조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제로 임용됨.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수지원과(☎064754-2021 2, Fax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 12. 30.

제 주 대 학 교 총 장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http://www.jejunu.ac.kr

■ 신년 인사 메시지-하세가와 와타루 일본 교토정보대학원 대학 이사장

“무한신뢰 바탕으로 양 대학간 발전 기대”

지난 가을학기부터 맞춤형 e러닝 실시 다양한 e러닝 솔루션으로 전력질주



일본 교토정보대학 하세가와 와타루 이사장

연결하여 처음으로 원격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와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의 교수님들이 교대로 강의를 하고 쌍방의 학생이 동시에 수강하게 되는, e-러닝을 활용한 ‘듀얼수업’의 시도입니다. 성공리에 끝난 이번 원격 강의의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넷 상에서 쌍방 학생끼리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대학교 학생여러분은 제가 일본에서 담당하고 있는 ‘리더십 세오리’ 수업에 흥미가 있나요? 비즈니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살아 있는 한 연재가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지식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력-

교토정보대학원대학 교수
교토컴퓨터학원 이사장

〈전공분야〉
교육리더십,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력 및 경력〉
와세다학문학부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대학원 졸업
문학석사(M.A.) 및 교육학석사(M.Ed)
사단법인 교토부정보산업협회 회장
전국지적정보산업단체연합회(ANIA) 이사, 인재대책위원회 위원장

〈취미〉
자동차, 오토바이, 스키, 낚시

제주대학교 학생여러분!
새해인사 드립니다.

제가 처음 제주를 방문한 것은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교와 일본 교토에 있는 저희 교토정보대학원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아탑의 거점으로서 제주대학교가 해야 할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동시에 앞으로 더더욱 양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e-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구의 발명은 생산 효율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생활 형태를 변모시킵니다. 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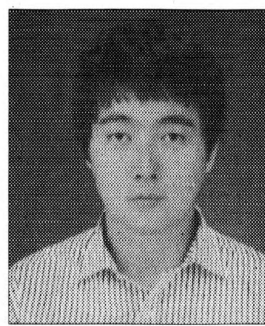
동시에 IT가 진화발전함에 따라 교육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e-러닝의 출현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며 교육 그 자체에 변동을 초래할 것입니다.

e-러닝이라는 단어가 막 등장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교실에서의 대면수업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e-러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교토정보대학원대학과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교토컴퓨터학원에서는 모든 수업이 e-러닝화 되어 있고, 학생은 수업콘텐츠를 Web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과제물 제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결코 대면수업과 대립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2008년 가을, 제주대학교와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양 대학을 인터넷으로

◆ 오경남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일만 아라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



오경남 총학생회장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다 함께 일어나갈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일 제3창학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제주대학교의 UI를 공개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새로운 제주대학교병원원이 개원하고 450석규모의 다목적 아라뮤즈홀 등 새로운 제주대학교의 환경에서 2009년이 시작됩니다.

전국명문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3창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짧은시간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교대통합 등등 너무많은 변화가 있어 한편으로는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3주체가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수님들의 학교도, 교직원만의 학교도, 학생들만의 학교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나아가서 제주도민 모두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학우님들도 학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학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학우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전혀 부끄럼지 않을 만큼 좋은 학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진다면 제주대학교는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생각대로 총학생회는 일만 아라인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생회가 될수 있도록 항상 일만 아라를 생각하고 겸손한 총학생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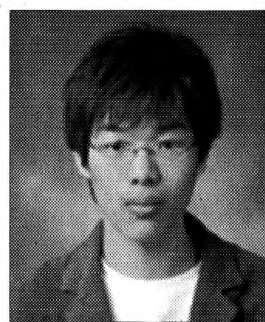
1월1일부터 총학생회의 일기가 시작됨에 따라 1년의 임기동안 더욱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일만 아라 학우님들께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일만아라 학우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총학생회뿐만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전반적인 사업에도 많은 관심부탁드리고 일만 아라가 함께 웃을수 있는 200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덕준 교육대학 학생회장

진정한 통합 제주대로 거듭나는 한 해 되길



부덕준 교육대학 학생회장

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의 성격에서 봤을 때와 또한 변화와 혁신 아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통합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한경대와 재원복지대를 통합하여 경기도의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고 강릉대와 원주대도 통합을 하여 강원도의 거점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주도의 거점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 개방의 시대에서 국내의 상황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신문, 방송법 개정을 통한 언론 또한 개방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다른 곳보다 한 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민적 축하와 존경 속에서 맞이해야 할 ‘스승의 날’은 치욕감에 몸을 한없이 낮추어야만 하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께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영어 교육강화, 자립형 사립고, 공립형 기숙학교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원 추락이 먼저냐 공교육 붕괴가 먼저냐’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옛그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직개방 방침을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서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교사로서 강단에 설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철밥통이었던 교직도 개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에 비해 우리는 사실 부족한 인력 또한 개방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더욱 교사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해에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번영, 근면상을 상징하는 소의 해를 맞아 모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送舊迎新

물어 물어 순환소주
(주)한라산
www.hallasan.co.kr

세계(IWSC)가 명품술로 인정한

한라산소주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타 지방 소주는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 타 소주 회사의 한라산소주 지분 소유는 근거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입니다.

(주)한라산 지역사회 환원 현황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후원금

[매년 7억 1천만원] (교육장학금, 체육장금, 적십자사, 각종학교 및 단체장고스폰서 포함)

제주대학교

[6억원 기부]

♣ 불우이웃돕기

[매년 5천만원]

(주)한라산은 창립 이래로 58년간 순수 향토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한라산 임직원 일동은 향토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8회 백록학술상 가작 논문

제주 4·3항쟁과 여성인권

Violation of Woman's human rights
i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임진영(법학 4)

I. 서론

1945년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는 사회개혁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에는 각각 소련과 미군이라는 외세가 주둔했고 이들은 냉전체제하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도모했으며 미군 점령기 3년의 모든 사회 모습과 갈등은 증폭되어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분단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하던 제주민중들은 단독 선거반대라는 기치아래 4월 3일 봉기하였다. 이에 제주도 민중들은 해방 후 최대의 집단적 희생자가 되었다.

근 십년간 4·3피해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4·3피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1995년부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4·3 피해 신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을 통해 4·3 당시 사망자들의 피해 신고가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발간한 『제주도 4·3피해 조사 보고서 - 수정보완판』(1997년 초 발간)에 따르면 4·3당시 남성 사망자는 9,192명, 여성 사망자는 2,443명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이 몰살당해서 신고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해의식에 젖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그 인원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며 이들을 감안, 현재 가장 유력한 사망 인원수는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남성이 78.1% 여성이 21%가 4·3으로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4·3 항쟁에서의 여성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통계적 수치나 공식화된 집계는 무의미하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학살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해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들에 시달렸으며 가족을 위해 강제 결혼을 강요해야 했다. 또한 남편, 자식, 부모형제를 잃은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4·3 이후 집을 다시 세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했다. 또한 남편이 입산한 경우에는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잡혀가 모욕적인 고문을 이겨내야 했으며, 지금도 피해의식으로 인해 역사적 침묵을 자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특수한 경험들은 양적으로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4·3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 피해에 비해 여성들의 참여 정도와 인권유린의 실태 등에 관하여는 아직도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한다면 ‘현재까지도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4·3피해 진상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4·3 여성 피해 사례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낸다면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더불어 ‘여성 인권 보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반공테러리즘으로 제주도민을 압살한 국가 폭력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인권을 유린당했던 제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 십년간 4·3에 대한 피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논문도 양적으로 풍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4·3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남성의 정치, 사회적 활동 위주의 서술이 주류를 이루으로써 여성들의 역사적 참여나 경험은 역사 속에서 외면되어왔다. 역사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의 총체성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여성사는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은 계급, 인종문제로도 해명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의 억압체계 하의 고통을 받아왔다. 4·3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적 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가족과 친족을 위해 강제결혼을 통한 희생도 감수했다. 또한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성대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또한 4·3이후 살아남은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사회질서의 영향으로 재산권조차 주장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여성의 역사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에 따라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 전영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사이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포방하는 사회사로부터 여성사는 관점이나 방법론에서 도움을 받는다. 여성사의 규명 없이는 전체사회사와 말할 수 없다. 4·3항쟁 속에서의 전체 여성사의 복원을 통해 해방 후 벌여졌던 4·3의 전체 사회사의 복원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당위성에 의해, 본 보고서에서는 미흡하나마 4·3 당시의 직접적인 여성 인권 피해 사례와 후유증, 4·3이후의 제주 여성의 삶, 4·3 등을 통해 바라본 여성 인권의 사회적 구조 등을 통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인권의 피해를 들추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크게 아쉬웠던 점은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들을 접하였으나 정작 4·3사건에 있어 여성인권이 유린된 부분을 다루는 자료가 빈약하였고, 그것도 공식화된 문헌 자료를 통하여서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었던 점이다. 최근 역사학 일부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구술을 기초로 한 역사 서술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신문과 증언집, 논문 등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문헌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여성의 경험을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채록된 증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4·3의 개요

먼저 4·3항쟁의 개요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2000년 1월 여야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호에서 “‘희생자’라 함은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희생자에 관해 정의하고 있고, 제3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유족에 관해 정의내리고 있다.

2. 4·3항쟁과 여성인권의 유린

(1) 고문치사와 성폭행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다. 9월 7일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며 곧 이어 인민위원회가 조직된다. 초기 인민위원회는 모든 지역에서 조직되었고 이데올로기의 구분될 것이 대부분의 도민이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행사하였다. 이시기에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삶을 염여매는 봉건적인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국내 국제 정세와 결합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제주도 부녀동맹 결성 시기는 1947년 1월 25일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다(제주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된 것은 46년 8월 1일의 일이었다). 부녀동맹은 그 당시 여성운동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제주도 부녀동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이환은 개회사를 통해 “조선의 해방은 8월 이상을 접하고 있는 부산 대중과 1천 5백만 여성의 해방 없이는 도저히 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직체를 가짐으로써 이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마을에서 여성의 교육 등에 힘을 쏟는데, 주로 문맹퇴치 교육이나 봉건제 타파를 주관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와 연계를 맺으며 1947년 3·1 시위나 1948년 5·10단선 반대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4·3 당시 여성들의 무장대 지원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4·3이 발발하자 여성들중 일부는 산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마을에 남아 무장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량이나 의복 등 생활 물자를 마련하여 무장대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된다.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면 이런 여성들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아 식량과 물자 보급로가 차단되어 무장대가 직접 마을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는 형국이 된다.

4·3당시 산에 썰을 올렸다가 곤곡을 치른 이촌형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증언 1 : 나는 1949년 1월경 여러 사람과 경찰서와 헌병대로 끌려 다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손을 뒤로 묶은 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렸어요. 헌병대로 옮겨진 후에는 전깃줄을 엄지손가락이나 뺨에 대는 전기 고문을 받았습니니다. 나는 2주일 정도 수감되어 나왔지만 산에서 심부름하던 처녀들은 희생이 컸습니다. 아무개 처녀는 순경이 자신과 결혼을 하면 살려주마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여 죽었습니다. 또 아무개 처녀는 ‘다라’ 목장 부근에서 토벌대에게 잡혀 산채로 유방이 도려졌어요. 그녀는 고통을 참지 못해 땅바닥을 긁어 대 손톱이 다 빠졌고 그녀가 죽은 부근에는 잔디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춘형(李春珩, 1996년채록, 채록 당시 82세)

4·3 발발 시기를 전후하여 육지부에서는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이 대거 투입된다. 1948년 6월 내도하여 12월에 떠난 탁상록대위는 극절 총살에서부터 생사상 수장등 각종 집단 학살극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불탈개도 야원종독자로 밝혀졌다. 그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야원 주사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환자 상태에서 학살극을 저질렀던 것이다. 탁대위의 패륜적 행위는 강상유라는 여성의 행적과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강상유라는 여성은 그 당시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과 같은 그룹인데다 그녀의 오빠 강상호는 일제시대때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다. 강상유와 친분이 있었던 강소희 할머니는 강상유의 죽음을 조신스럽게 말했다.

증언 2 : 얼굴이 고왔던 강상유는 명문가 집안에 시집갔으나 4·3당시 홀로 된 상태였었는데 탁대위는 강제로 그녀를 범한 후 함께 살다가 어떤 일인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서청단장인 김재능도 여자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는 양 아무개를 범했지만 그녀는 죽을 위기에 놓인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벌대에게 누가 당했다더러.’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전전공공했어요. 당시 몇몇이 여성들도 많았는데 무서워서 급급히 나들이도 삼갔고 일부러 바보처럼 꾸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강소희(1996년 채록, 채록 당시 77세)

강소희 할머니의 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강간 등은 4·3초기부터 발생한다. 강간을 당하는 여성이 많아지자 이를 염려한 여성들은 밖에 외출을 할 때 일부러 피 묻은 생리대를 차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여성의 인권 피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은 제주4·3항쟁의 진압요원으로 파견된 약 5백 명의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다. 특히 서청은 경찰보다 더욱 위세를 떨치며 제주 도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오늘날까지도 제주 사람의 뇌리에 ‘서청’이라는 용어는 공포와 원망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4·3 전 기간에 걸쳐 자행된 고문, 강간, 집단학살 등 모든 만행에 서청이 연루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우리는 이북에서 공산당에게 쫓겨왔다. 빨갱이들은 모두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극도의 증오감과 복수심을 안은 채 제주에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 볼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었다. 입도한 전반기에는 ‘서북청년단’이란 일반 청년단체로서 행동했다. 그러나 토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이나 군인으로 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만행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이북 출신인 서청뿐만 아니라 육지부에서 온 응원경찰대의 만행도 분분하게 일어났다.

제주시 오라동의 나이트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떤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1948년 6월 9일 일어난다. 마을로 들이닥친 경찰대는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집결시켰다. 경찰은 그곳에서 마을을 떠난 입산자들의 소재를 대러며 주민들을 뒤달랐다.

증언 3 : 나는 그때 마흔 두 살이었어. 경찰관이 다짜고짜 ‘네 서방 어디 갔냐. 폭도집 하러 갔지?’하고 욕박질했어. 내 남편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 살았지. 그렇게 얘기해도 주먹질이야. 경찰은 그 사이에 겁을 먹고 골방에 숨어 있던 내 머리를 붙잡아 공회당 터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머리를

걸상 위에 누인 후 배 위에 긴 나무를 깔아 놓고 두놈이 통나무 양쪽에 앉아 ‘네 서방 간 곳을 대라’고 고문했지. 차라리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달려드니 내 뺨을 때리면서 그 짓을 계속했어.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

경찰은 여러 사람을 심문하다가 갑자기 한 할아버지를 불러내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는 또 할머니를 지목, 그 위에 올라타 마부 흉내를 내면서 빈 터를 돌게 했다. 고난항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때 그 하르방은 60세가량이었고 할망은 그보다 몇 살 위였어. 두 사람은 관당(친척)이었어. 마치 하르방 말에 채찍질하라는 듯 마를 뿌리를 할망 손에 쥐여 주더군. 할망이 머뭇거리자 또다시 욕박질했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어떻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꼭꼭히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그런 모욕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

-고난항(高난항, 1989년 채록, 채록 당시 81세)

1948년 5월 30일 응원경찰대는 한림면 청수2구(지금의 한림면 산양리)를 기습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끌어내어 수통국민학교 마당에 집결시킨다. 발 빠른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빠다. 그들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죄의 유무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구타를 했다. 그리고는 여자고 남자고 가릴 것 없이 모두 옷을 벗긴다. 당시 현장에서 수모를 겪었던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보자.

증언 4 : 토벌대는 침착한 장작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렸어. 그러다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훔탈 벗겼지. 나는 당시 마흔 살이었는데 체면이고 뭐고 기릴 여지가 있나. 그냥 옷을 벗으라 하니 벗을 수밖에. 토벌대는 옷을 벗긴 채 또 장작으로 매질을 했어. 그러다가 실증이 났는지 얼마 없어서 처녀 한명과 총각 한명을 지명해 앞으로 불러내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강요하는 거였어. 인간들이 아니었지. 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자 또 매질이야. 그러다 날이 저물어가지자 주민 4명을 끌고 가 총을 쏘아 버렸어.

-좌봉(左奉 1994년 채록, 채록 당시 87세)

경찰 내부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고문도 계속 발생한다. 4·3당시 서귀포 경찰서장을 역임했던 김호겸씨는 자신이 목격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증언 5 : 1948년 11월경 경찰서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조실로 가보니 한 여자가 나체인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일본도를 들고 가서 화를 냈더니 취조하던 수사대원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경찰청장에게 ‘최한수가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 사람들은 점점 더 육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다. 그러면 사태 진압이 어려워진다’고 따졌습니니다. 그러나 육지 출신의 특별수사대 경감 최한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김호겸金浩謙(1996년 채록, 채록 당시 80세)

여성들의 활동도 희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감행되면서 그 구분은 애매해진다. 활동을 했던 여성이든 안했던 여성이든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학살극이 그나마 주로 젊은 남자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활동가들 위주의 고문, 폭행이 많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초토화 작전’ 전개 이후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

1949년 3월 3일에는 한 군인이 처녀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총살한 사건이 벌어져 가족과 주민을 분노케 했다. 군인의 겁탈을 죽음으로 막은 사람은 강매옥(姜梅玉, 당시 19세)이었는데 강매옥의 언니 강경옥씨는 지금도 학살자의 생채와 얼굴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증언 6 : 당시 친정집에는 군인 3~4명이 임시 주둔했는데 그 중에서 ‘최상사’라는 놈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참 예뻐쥬. 그놈들은 처음에 처녀들을 몇 명 집합시켰다가 동생이 제일 골다고 생각했는지 덮쳤습니다. 그러나 마을대로 안되자 총을 쏜 겁니다. 동생은 배꼽 부근에 총을 맞아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숨졌습니다.

-강경옥姜景玉(1997년 채록, 채록 당시 77세)

심지어 임신 중이던 여성들에 대해서도 토벌대

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다. 토산리의 한 증언자는 “중산간을 순찰하던 토벌대가 임신부의 배를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았다.”고 했다. 당시 29세였던 안기정씨는 임신 중에 토벌대가 손 총에 맞아 죽었고 선혈을 살고 계신 차경구 할머니는 임신 중에 보름간 고문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 시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증언 7 : 남편은 목수일을 하느라 잠시 조천리에가 있던 1948년 9월 맡게입니다. 하루는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는 ‘산에서 왔는데, 이 집에서 썰을 준다기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군인이었는데 함정을 판 겁니다. 난 ‘쌀이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끌어내었습니다. 2살난 딸을 데리고 나섰더니 윤휴전씨 아내도 끌려나왔더군요. 우리 둘은 함덕 국민학교로 끌려갔다가 송당리 군인 주둔지로 넘겨졌습니다. 군인들은 ‘거센새미오름’ 주변에 천막을 치고 주둔했는데 숫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난 그곳에서 보름간 고문 받았습니니다. 뒤로 몸통을 끼운 채 무릎을 꿇려 놓고 위에서 마구 밟았습니다. 지금도 잘 걷지 못해요. 임신했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산했습니다. 난 다시 제주읍내 농업학교로 옮겨져 보름 기항 감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차경구(車慶九 1996년 채록, 채록 당시 77세)

1949년 1월 성암리 주민들은 토벌대가 저지르는 한 모자(母子)에 대한 총살극을 지켜봐야 했다. 그들은 남편이 산에 올랐다는 이유로 그 부인과 갓난아기를 아무 거리낌없이 죽였다.

증언 8 : 대부분 토벌을 갔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 경찰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민보단과 부인 회원을 모이게 한 후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니다. 그 여인은 난산리 출신으로서 신룡리에 시집간 사람인데 남편이 일용직이 산에 올라 자기 친척이 있는 우리 마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삭인 상태로 와서 아기를 낳았지요. 경찰은 그 여자를 발가벗긴 후 민보단원과 부인 회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총으로 쏘았습니다. 생후 한 달이 안된 아기가 죽은 얼마 앞에서 버둥거리자 경찰은 아기 얼굴에 대고 또 한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김원형(金元亨 1997년 채록, 채록 당시 87세)

4·3이 양민 학살이라는 증거는 이렇듯 힘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희생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남성이 입산을 하면 그의 부인과 자식, 장모까지 학살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 판배했던 동서 남전의 분위기는 어린이아이들까지 ‘빨갱이 새끼’로 몰아넣어 학살할 정도였다.

한편, 4·3 사태 당시 여성들이 경험한 도착적인 성폭력은, 여성을 빨갱이 인종을 재생산하는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하여 상상적으로 자행된 빨갱이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테러로 볼 수 있다. 여성의 몸은 남성에게 성적욕망의 대상이면서 또한 여성의 성적욕망은 남성의 성적욕망을 자극하며 남성의 몸을 오염시키는 통제불능의 파괴적이고 위험한 실체로 인식된다. 여성의 쾌수열리티가 가지는 파괴적인 힘에 대한 상상은 남성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의 대상 자체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남성은 자기방어의 메커니즘에 따라 여성의 몸을 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폭력적 행위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여성의 몸은 폭력과 성적욕망의 이을 배반적인 심리구조가 가시화되는 장소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빨갱이’ 혐의가 있는 여성의 몸은 반공과 용공의 차이가 각인되는 몸이며 스펙타클이다. ‘빨갱이녀’의 ‘열려진 몸’은 폭력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억압된 성적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은 욕망의 대상을 고문하거나 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증언에서 보여졌듯이 토벌대가 공공장소에서 성교를 시키는 것은 당시 여성이 정절을 지키지 않고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성교를 당하는 여성과 함께 도덕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 전체에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더불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하의 정절관념에 따라 간음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요된 성교는 성교대상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느끼게 하고 이를 지켜보는 토벌대는 강제 성교당하는 남성주민에게는 승리감을 맛보고 최종에는 강제성교당하는 여성을 죽임으로써 생사여탈권을 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다.

그렇다면 왜 성적 폭력은 이와 같은 잔인성과

제28회 백록학술상 가작 논문

제주4·3항쟁과 여성인권

다의성을 동반하는가? 그것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국민과 민족의 재산을 보종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문화를 재생산하는 상징으로서 이해되고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4·3시기 동안 벌어진 성적 폭력의 성격은 공동체의 사회문화의 재생산을 의미하는 여성의 몸을 강제로 취하고 성교 시키거나 죽이는 등 공동체의 파괴의 의미를 내포하며 여성을 몸을 경할 및 서창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모멸의 의례가 되고 죽음의 공포를 자아낸다. 성폭력을 통해 토벌대는 제주 민중, 그리고 여성들에게 생존과 정신 여탈의 권력을 파시했던 것이다.

(2) 토벌대와의 강제결혼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초토화 작전 명령이 내려지고 무장대에 대한 대토벌이 감행된다. 이 계엄령은 그해 12월 31일 해제되지만 1949년 1월 4일 재선포 되어 1949년 10월이 되어서 해제된다. 초토화 작전 시기는 계엄령이 내려졌던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이어진다. 최근에는 이때 내려진 계엄령에 대해 '적법인가 불법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목과할 수 없는 것은 당시 내려졌던 계엄령이 양민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 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강간 살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태가 완화돼 무장대와의 충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토벌대는 불가항력의 주민들을 처형했다. 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이 금품을 갈취하려는 서북청년단에게 끌려가 희생되었다.

서창이 강제결혼을 감행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 대상으로 맘에 드는 여자를 골라 강제 결혼하는 사례와 또 하나는 제주에 안착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재력가의 딸과 강제결혼 하는 사례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육지에 분자를 두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성산을 동남국민학교 교사였던 한 증언자는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기막힌 사연을 이렇게 증언했다.

증언 9 : 옛장수나 하던 서창들이 무장을 하게 되면서 희생자는 속출했습니다. 난 교사로서 주정 공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를 불러내어 구타 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볼로 지지기도 하였습니다. 밤에는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루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정 아무개 선생 때 문입니다. 정신상은 나의 약혼녀였는데 그 선생이 아이무개란 서창 간부와 결혼해서 나를 살려준 겁니다. 날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감탈하려던 서창원과 결혼한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홍경도(洪敬土 1997년 채록, 채록 당시 70세)

강제결혼 사례를 몇 개 더 들어보자.

증언 10 : 나는 48년 11월 2일 서창 출신 박 아무개에게 끌려갔다. 그는 약성이 높았고 지금도 제주에서 잘 살고 있다. 그의 부인은 교사 출신 고아무개인데 그가 지서 주임 시절 강제 결혼하였다고 한다. 그 녀는 할 수 없이 애널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부부 동반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김아무개 (1996년채록, 채록당시 81세)

증언 11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양아무개가 있다. 그도 결국 죽을 건데 서창단장 김재능이 그의 누나를 빼앗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를 살린 요인이다. 그보다 못한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또 나중에 영화감독이 된 서창 출신 김 아무개도 성산포에서 맘에 드는 여자를 빼앗아 살았다.

-최길두崔吉斗(1996년 채록, 채록당시 80세)

이런 성폭행에 관련된 증언은 본인 자신이 하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채록하는 과정에서 당시자 본인의 증언보다 간접적인 증언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아래의 증언자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직접 증언했다.

증언 12 : 난 해방 직후 음악동지회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부르기로 성내에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차출되었다. 이때 노래를 부르면서 토벌대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서창단장 김재능이 나를 노렸다. 김재능이란 놈은 나이트 여자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해 볼까 궁리하는 놈이었다. 김재능에게 열렬동방 '다음에 보자'고 하여 도망쳐 나온 적도 있다. 또 2연대장이 날 노렸다. 한 번은 자신의 부하에게 날 몰래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 부하들은 우리집 담을 넘다가 실수해서 우물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결국, 날 도와주었던 2연대 헌병 대장과 결혼했다.

-술아무개(1996년 채록, 채록 당시 76세)

또한, 당시 서북청년단 서귀포 단장은 임아무개였는데 한 재력가의 사위가 됐다. 경찰 사찰계에서 근무하던 서창출신 김아무개도 역시 재력가의 사위가 되었다.

한 피해 여성과 교원양성소를 같이 다녔다는 할아버지는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증언 13 : 한 군인 장교가 교사를 하던 한 여성을 탐내서 그녀를 위협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동생을 보고 반해서 이번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버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려 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다. 그 여성의 집은 양철집(그 당시의 양철집은 부자집의 상징)이었는데 총구멍으로 범벅이 됐다. 결국 그 군인장교와 결혼한 동생은 육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혼 당했다고 한다.

-李아무개, (1998년 3월 채록, 채록 당시 73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I』(445쪽 ~ 446쪽)에 제주 여성과 결혼한 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기록에는 "제2연대장 함중령은 '과거 9연대 시절 민폐가 있었음을 인식, 이를 막아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 증거로 '뒷날 제주도 여성과 결혼한 사병이 적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재정 확보를 위해 강제결혼한 것을 '신뢰를 얻어서 결혼했다'고 표현하는 이 기록을 보고 한탄을 금할 수 없었다. 강제결혼 당한 여성들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은 왜곡된 기록을 통해 여성들의 인권은 더욱 실추된 것이다.

3.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 인권 피해의 사회적 구조

(1) 사회구조적 요인

4·3이라는 거대한 양민 학살 과정에서 여성 피해 사례는 그 잔혹성에 있어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가?

첫째, 4·3 당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상태였다.

4·3당시 과연 여성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는가? 그때 여성들에게 자행된 만행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위에 다져진 국가적 폭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더욱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이었다. 너무도 쉽게 자행되는 강간, 과부 하나쯤 건드렸다고 해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사회구조, 갖은 성희롱과 성고문, 강제결혼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 이 모든 것은 4·3당시 여성의 인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여성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둘째, 사회 전반적인 왜곡된 성의식이다.

4·3당시 여성은 '인간'이기보다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서창이나 응원경찰들은 여성을 '성적 노리개'라는 도구로 인식했다. 여성은 이들에게 있어서 '성적 욕망'만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왜곡된 남성우월주의적 성의식은 국가적 폭력 속에 더욱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 확보 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하는 왜곡된 성의식도 또한 중요하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서창이나 육지 응원경찰들 중에는 제주에 안착하기 위해서 재정 확보가 필요했다. 그런 연유로 토벌 말기에는 일부러 재력가들을 잡아다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제결혼' 형태로 재정 확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가해자인 그들은 물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왜곡된 성의식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생명 보존 수단'으로 자기 딸을 강제결혼시킨 것이 그것이다. '네가 저 놈과 결혼한 하면 우리 가족은 안전 할 수 있다.' 라고 달래면서 자신의 딸을 강제 결혼시킨 슬픈 이야기 역시 여성을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성의식의 한 단면이다. 물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 삶은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강간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인 '죄'과 결혼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법적인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신이 낳은 자식의 아버지인 것이다.

물론 강제결혼한 사람들 중 남편을 두둔하며 자신의 삶을 행복한 것인 양하는 사람도 있다. 그

러나 그들의 의식 세계는 그렇게라도 합리화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절박한 심리 구조가 반영된 결과일 뿐, 진정한 행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전시 하에서의 여성성의 도구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4·3은 엄밀히 말하면 전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양민 학살 형태를 보면 전시 하에서 행해지는 것 못지않았다. 전시 하의 여성은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힘만이 최고인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힘없는 존재는 1차 목표가 될 수 있다. '여성'은 전쟁 시 남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아마 '강간을 당하거나 몸을 팔아서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4·3을 보더라도 그런 의미 해석은 무의미해진다. '강제결혼' 형태라라도 목숨을 부지한 여성도 있지만 성적 노리개로 활용되다가 차후에 버려지거나 죽음을 당하는 여성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 중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피해 사례, 베트남전에서의 여성 피해 사례를 살펴봐도 그것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그들에게도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을까?

넷째, 냉정 이데올로기의 체제상의 이념의 문제이다.

4·3 피해를 분석할 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동서 냉전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시 국도로 표출되었던 냉전의 분위기는 여성 피해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인명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던 1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의 세 가지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4·3당시 여성인권유린을 가능케 했던 구조는 바로 이것이다. 이승만은 서울에서 열린 서북청년단 총회에 참석하여 서창원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신원이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라고 격려하면서 '자기 납속 끝 외판 섬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서창은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빨갱이를 타도하려 가는 애국자들'로 군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서창은 이복에서 쫓겨 온 상태였고 '빨갱이들은 모두 썩을 말려야한다.'면서 국도의 중요감과 복수심을 안은 채 제주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제주에 와서 '빨갱이 여편네'를 고문, 강간,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동서 냉전이 물고 온 국가 폭력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이다.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 두려는 미국과 남한반에서라도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강화된 냉전 체제는 집단적 광기의 인권유린을 가능케 했던 가장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장군 사이에 '한미군사안전장점협정'이 체결된다. 이것은 미군이 완전 철수하기 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물론,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와 시설의 지배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군정의 지원과 방조 하에 자행된 집단광기적 인권유린은 '서북청년단'의 만행에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군과 더불어 이승만은 서북청년단의 무소불위적 폭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자신의 정권 장악에 이용했던 것이다.

(2) 빨갱이의 모태(母胎)로서의 여성

'빨갱이년' 혹은 '빨갱이 가족'이라 하여 제주 여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대신 무고하게 학살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그러한 피해와 고통을 지자라도 침묵당해야 하는 여성 피해의 양상은 남성의 경우와 다르게 가부장제 성폭력의 양상이 부가되는 가혹성이 두드러진다. 빨갱이 중으로 남성의 성적 판타지가 교차하는 국가 폭력의 정치기술은 '여성의 몸'을 '빨갱이의 몸'으로 재현하는 데서 나타난다. 피해자 여성의 몸은 '빨갱이'의 위험을 성적인 기호로 각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한 공포를 재현하는 장소가 된다. 달리 말하면 빨갱이 혐의가 있는 여성의 몸은 반공과 용공의 차이가 각인되는 몸이며 스펙터를 인 것이다.

4·3항쟁 당시의 제주여성의 이러한 경험은 국가 폭력의 대상이 여성화되고 성화된 몸(gendered and sexualized body)으로 기호화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육체성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여성의 몸은 몸의 육체성, 즉 따뜻하고 흐르는 성질의 월경피와 생명 재생산의 자연적인 특징 때문에 암순한 몸의 중심적 은유로 사용된다. 남근부없이 나체로 채적으로 패러거나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자대는 고문 사례에서 제주도 주민이 여성화 성화된 몸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나체로 고문하는가? 체제에 의해 살이 벗겨진 피고문자의 상처받은 몸은 고문자가 자신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폭력 행위를 전사하는 '폭력의 몸(the body of violence)'이다. 살이 벗겨진 나체

는 이에 덧붙여서 고문자의 성적 욕망이 각인되는 '성화된 몸'이다. 폭력의 몸이 성화된 몸으로 전환되는 실제 여성의 몸은 '빨갱이의 몸'이 갖는 여성성의 실체이며 또한 기표가 된다.

더구나 임신부를 학살하는 많은 사례들은 '생명을 배태한 몸'으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 폭력 행위자의 성적 환상이 실현하는 정치 기술을 보여준다. '빨갱이 종자를 말려야 한다'는 이유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도중에 혹은, 아이를 복중에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살이 자행되었어야 할 다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의 몸은 생명을 배태한 몸으로 빨갱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빨갱이의 몸'의 위험은 우선 빨간색 자체의 상징성과 생명을 배태한 몸, 그리고 출산하는 몸이 연상시키는 '피가 흐르는' '열린 몸'의 상징성에서 도출된다. 빨간색은 반역의 식이며 공산주의자의 색이다. 반공 국가에서 정치적인 금기의 색깔인 빨간색은 그것이 연상하는 또 다른 이미지, 피의 이미지 곧 생명 잉태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빨갱이의 몸'에 대한 폭력은 인종화, 성화되어 나타나는데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발가벗겨거나 굴욕적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성폭행 사례에서 여성 개인의 몸은 곧 빨갱이 주민 집단의 '사회적 몸'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가해자의 반인도주의적인 폭력을 피해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정당화 폭력으로 의미전환시킴으로써 가해자 자신들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여성의 개인적인 수치심이나 그들의 희생은 완전히 무시된다.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게 만들며 이로써 정당성을 부여받은 여성의 학살은 가해자의 폭력의 몸에 귀속되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곧, 그들의 공개적인 성적 굴욕과 그에 따른 희생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몸'의 종말을 느끼게 하며, 또한 그들의 '실재적 몸'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4·3 항쟁에서 여성학살의 사례들은 거대한 국가폭력 속에서의 여성인권의 침해를 보여주는 복잡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4. 4·3항쟁 이후의 제주 여성의 삶

(1) 경제적 차원 - 여성가장의 역사와 생존으로서의 재가

1948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있었던 군경 토벌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은 주로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1948년 11월 제주도 전역에 소개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은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 주민들로 하여금 부락단위로 유격대의 침입을 자처적으로 방어하거나 토벌군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제 주민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폭도에 가담하든지 제주 읍이나 일주도로 주변의 치안이 확보된 해안부락으로 피난 가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다. 선택의 기로에서 낮은 마을 주민이 있는 무장대는 무작위로 토벌하는 군, 경의 토벌대보다 덜 무서웠으므로 심정적으로 산속(무장대)을 지지하는 이가 많았다. 더욱이 소개령에 따라 해안부락으로 하산한 주민들에 대해 경찰들이 감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 살았는데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로서는 갈 데가 없었다. 결국 해안가 마을 주민들에게서 집을 빌리거나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다. 중산간 주민들로서는 별 별 천대를 받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를 이어갈 터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4·3이후 제주 전체지역에서 160개에 이르는 많은 부락이 한화를 잃었고 피해자호만 1만 5천 2백 28호로 이재민은 전체 인구의 35%인 9만 1천 7백 32명이었다고 한다.

한편 입산 금지가 쫓긴 것은 1954년 가을이었

다. 그해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한라산 금

속 지역을 전면 개방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

귀가 가능한 지역은 중산간 지대 중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고 아직 상당 부분이 적성지역 및 공비

출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해안가로 내려와 살던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재건되자 다시 고향으로 갔다. 그러나 재

건된 마을의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미망인 가구

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자신

들의 농경지와 마소를 풀어먹이던 목장을 한꺼번

에 잃고난 것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친족관

계에 의해 조직된 마을에서 남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남성을 매개로 한 사회관계의 붕괴를 의미

하며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했

다.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와 제사에 대한 봉사권과 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례도 있었다. 1951년 제주도 사회당국 조사에 의하면 미망인 수는 여성 인구의 1할인 3,273명이고 이중 7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기록했다. 특히나 제주도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고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재혼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 그러나 가계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여성 노동력만으로는 힘들었던 점이 많았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 없는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반면 여성들 스스로 마을을 재건하고 가계의 독립적 주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4·3이후 초토화 작전으로 산간마을은 모두 불태워졌고 산간에 살고 있었던 마을의 청·장년들 중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여성들은 미망인이 되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개가지 않고 여성의 힘으로 마을을 재건하고 어린 자식을 기른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4·3당시 살아남은 여성들은 죽자 해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독립적인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처지의 재건 가구 중 미망인 가구와 남성 가구의 경제적 격차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집의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이는 4·3의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남성을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망인 가구는 생존한 남성들과 수눌음의 노동 교환을 해야 했다. 그런데 수눌음의 노동 교환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수눌음은 하루 동안 도움을 받으면 하루를 갚는 형식이지만 당시 여성들은 남성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성 노동력 하루를 빌리면 5일 동안을 일해주어야 했다.

이렇게 불평등한 노동교환방식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은 여성들에게는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남편과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땅도 빼앗기고 불에 탄 상황에서 늙으신 시부모님과 어린 자식들을 손수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제주 여성들은 힘든 노동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다.

한편, 남편을 잃고 아들이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라도 재산권과 봉사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유교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 여성을 양자로 둔화시키고 사회구성원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한 반면,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 살아남은 여자아이들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친척들이 조상의 제사봉사를 위해 양자를 들였다. 조상의 땅을 모두 양자에게 이전시킴으로서 여자는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한 채 할머니와 불우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편 자식이 죽었거나 없고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기다리다가 생존의 수단으로서 재가를 선택하는 여성도 많았으며, 시대 정황상 혼인 즉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4·3이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법적으로 미혼모인 상태가 된 경우도 있고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례도 빈번했다. 재가한 여성들 중엔 기존의 가정의 작은 각시(첩)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아들을 잃은 가정에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4·3이후에 남성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에서 대를 잇고자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4·3사건 이후에도 제주여성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성 위주의 사회현실 속에서 많은 억압과 수난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했다.

(2) 사회적 차원 - 여성들의 기억과 연좌제

여성들은 4·3에 대한 인터뷰에서 4·3을 사대나 시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4·3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싫어하며 적대적 태도를 먼저 보였다. 그러나 언급한 것도 4·3에서 가족을 잃었던 기억에 대한 것이 전부 일 뿐 자신의 성적 고문경험이나 성폭력의 당사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왜인가? 그것은 여성 자신 스스로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여성의 성적 피해를 당사자에게 묻는 일 자체가 당사자인 여성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성적 폭력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수치심이 되어 피해 여성의 정신세계를 억압한다. 이는 전통적 정조 관념 하에서 다른 남성에게 자

제28회 백록학술상 가작 논문

제주4·3항쟁과 여성인권

신의 몸을 드러낸 것 자체가 순결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살아남은 남성들이 이웃의 여성들이 당한 성폭행, 사청과의 강제결혼, 생존 전략으로서의 개가에 대해 대신 증언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일은 없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기억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성들이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에 관한 것과 사건 이후 살아남은 여성으로서 고단했던 삶의 면모를 부각시켜 기억하고 있다.

한편 4·3은 살아남은 여성에게 화병이라는 특이한 병을 평생토록 앓게 했다. 이는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과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따금씩 가슴이 팍 막히고 심장이 뛰는 듯한 증세는 긴 세월 동안 풀지 못한 분노와 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지 못하는 기억은 한으로 누적되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도 수반하게 한다. 4·3의 와중에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살아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온 윤희춘 할머니는 이때부터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 목둘레에 흑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한과 울분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인 이름 모를 병을 앓게 하고 있다.

4·3은 여성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을 만큼 가슴 아픈 기억이다. 하지만 되살리고 싶지 않은 기억은 자신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연좌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성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찔러주게 만든다.

1948년 9월 서청에 의해 부친과 오빠를 잃고 병든 어머니와 동생 3명을 키운 소녀 가장 이순정씨는 초등학교 교원임용에서 신원조치시 4·3과 가족이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예비갑숙으로 무고하게 납편을 잃은 이도영 박사의 어머니는 자식이 교사로 임용될 때도 신원조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에서

조차 신원조치가 문제시되고 미국 유학시 비자문제에서도 신원조치에 걸리는 등 억울하게 앞날에 장애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사적인 영역에 머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한 평생 살아온 여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연좌제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상처인 자식의 앞날에 장애가 되는 연좌제의 피해를 지켜보아야 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도 항상 '호로자식'이나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4·3의 아픔을 삼켜야 했다.

홍문평씨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군복무시 좌천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막내 아들이 ROTC로 군에 가려고 했을때 신원조치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협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보직의 위태함을 느껴 자신의 조카에게조차 유족임을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사실을 알리고 조카로 하여금 부친의 묘소를 찾아 제사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했다.

연좌제의 공포는 이렇듯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생의 위협으로 다가와 조카에게마저 비밀로 유지하게 만든 것이다. 자신과 후손들을 학살의 과거로부터 분리 단절시킴으로써 '빨갱이 집안'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최근까지도 외국 여행시 4·3관련지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힘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좌제 피해 대상	피해사례	비율
본인 56%	공무원 임용시범	26%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23%
자식 40%	국공기업, 사기업 취직 또는 승진	18%
	군(경)에서 승진 또는 불이익	16%
	국내의 여행 및 출입국 과정	8%
본인, 자식, 친지 포함 60%	일상생활에서의 감시	30%
	각종 신원 조회	60%

제주 4·3도민연대의 4·3관련 연좌제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2000년 8월 13일)에 따르면 연좌제의 고통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86%였다. 4·3관련 가족들이 겪은 연좌제 피해사례에 대한 구체적 응답은 다음과 같다.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와 각종 신원조치시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춘배씨는 억울하게 4·3당시 마포 형무소에서 재소자 자살로 인해 그의 딸과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1982년도에 '보안감찰대상자'라고 적힌 문서 하나로 인해 경찰의 감시를 늘 당해왔다고 전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법적으로 폐지된 연좌제 및 감찰사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반복되어 4·3관련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당시의 수행자 및 재소자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일방적 형의 언도와 수감을 당했던 인권침해의 피해자인데 부당한 과거의 제적으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은 이중의 인권침해인 것이다.

여성유족은 공적영역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사례는 적었지만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 등이 신원조치에 걸려 좌절을 경험할 때 이를 지켜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상적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상징기를 보내야 했고 가족의 순탄치 못한 일상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III. 결론

그러나 이렇듯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강간을 당하고서도 속으로만 삭혀야 했던 사람들,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켜봤던 사람들, 부모가 처형될 때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지옥과도 같았던 그 시절을 견뎌 낸 이들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떠한가? 4·3은 오늘날까지도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커다란 아픔으로 잔재하고 있다.

1948년 4월 3일, 4·3사건으로부터 60주년이 되었다. 4·3 당시의 여성 인권 피해는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본론에서도 밝혔듯이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성 억압적 구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폭력적 구조는 변함이 없다. '냉전 구조하의 광기적 국가 폭력' 대신 '자본주의 구조하의 경제적 폭력'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광기적 국가 폭력이 문명의 현대 사회라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내전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은 취약한 여성이다. 최근 벌어진 코소보 사태에서 세르비아계 특수경찰들이 '게릴라 소탕'라는 명목 아래 무고한 여성들까지 무참히 학살하는 사례가 있었다. 오늘날에 와서도 여성은 '여성'이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 현재의 여성 억압적 구조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4·3과 코소보 사태와 같은 여성피해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성운동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약자이다. 특히 4·3과 같은 구조적으로 권력이 뒷받침된 폭력 속에서 여성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다.

4·3은 보편적 인간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인권유린을 가져왔다. 특히 이 상황 하에서 여성은 가장 참혹한 피해를 당했다.

먼저, 여성 인권 운동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분명 여성 인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3당시의 여성 억압 구조는 본질상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주체적 역량의 강화 없이 여성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권리는 기반이 없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운동 속에 쟁취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회 전반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 있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여성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여성'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사회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적 노리개로서 또는 자신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뿐이다.

셋째, 반전 평화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냉전 체제의 광기적 국가 폭력 같은 것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4·3의 여성 피해는 특히 전신과 같은 상황이었기에 더욱 잔인하고 큰 규모로 나타났던 것이다. 현재 코소보 지역, 동티모르 지역, 보스니아 등의 수많은 인권 피해 사례는 전쟁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인류역사에 있어서도 '전쟁'은 이와 똑같은 고통을 여성들에게 집 지을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 이상이 작동하지 않는 전신 하에서는 아무리 활성화된 여성운동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때문에 진정한 여성 인권확보는 반전 평화 운동 속에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여성 운동의 연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대만 2·28 문제 해결을 보면서 4·3의 해법에도 많은 참고를 하였듯이, 우리와 처지가 유사한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경험 공유와 연대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제주 여성의 고통받는 몸의 언어적 가시화는 4·3의 무고한 희생을 가시화하는 첨경이다. 그것은 반공국가에서 '빨갱이'의 인종적 말살이 제주도 주민의 집단적 성폭력과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4·3의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빨갱이 혹은 폭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은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 즉 인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4·3의 대량학살과 성폭력을 자행한 폭력의 행위자, 직간접적으로 폭력행위에 참여한 집단 혹은 개인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명령하고 정당화해주는 기구, 곧 국가 자체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그 책임은 희생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국에는 무고한 희생의 진실을 알리고 배상하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고통받는 몸'에 대한 예의이며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는 제주와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수상소감 '백록학술상 가작 입상'

제주 4·3 여성인권관심 계기 되길



임진영(법학 4)

4·3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었던 나.

에게 제주4·3과 그 속에서 침해당한 여성의 인권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는 지난 4학년 1학기, '법여성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찾아왔다. 이 과목 수업시간중 어느 날 여성인권과 관하여 발표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역사적 사건과 접목시켜보고자 공리를 하던 중, 그동안 부끄럽게도 관심을 가져보지 아니하였던 제주4·3사건을 떠올렸다. 발표까지 제주4·3과 여성 인권에 대하여 온 열정을 쏟아부은 기억이 난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여성학 과목 '조은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본 논문 4·3과 그 역사적 비극 속에서 유린당했던 여성의 인권

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속에서 침해당했던 남성의 인권이 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차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학적·정치학적·심리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피해규모나 보상에 있어 소수적 입지에 있는 여성 인권에 관하여 재조명해보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

비록 졸작이지만 본 논문이 읽는 이, 특히 제주대학생들로 하여금 제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비극인 제주4·3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침해당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이라도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제 28회 백록학술상 심사평

시의적절한 문제의식 돋보여... 논문작성법에 대한 이해 아쉬워



지난 해 12월 23일 백록학술상 심사위원들이 언론출판센터 주간실에서 심사를 했다.

언론·출판센터 제주대신문이 주최한 제28회 백록학술상 공모에는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나름의 치열성을 보인 9편의 논문이 제출돼 학문 연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늠할 수 있었다.

심사기준은 연구논문의 창의성과 적합성, 연구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문발전 및 실용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이를 기준으로 논문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주력했다.

우선, 예선심사에서 7편의 논문은 대부분 연구방법을 제시하는데서 연구기간 등이 밝혀지지 않는 등 기본적으로 논리에 포함돼야 할 것이 빠져있었으며, 조사결과를 분석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아쉬웠다. 또한 참고문헌, 인용 등의 표기가 논문 표기 양식을 크게 벗어나는 등 부적합 요인들이 발견돼 탈락했다. 또한 공모된 논문들이 시의성과 학문적 호기심이 충분했지만, 기술방법이 너무 평면적이거나 단순하고 나열적이어서 리포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선 심사는 9편의 논문 중 예선에서 탈락한 논문을 제외한 총 2편을 대상으로 오랜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를 벌였다.

우선 사회교육과 송형일·고은주·이정민 학생의 '권당문화와 지방선거'는 면담 조사가 잘 이뤄졌고, 자료조사 및 정리가 논문의 목표와 잘 상응하고 있다. 대학생의 조사·분석 보고서로는 그 틀이 정연하게 잘 갖

추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방선거라는 부분적 현상을 통해 감정마를 전체의 정치사회적 의식을 판단해 낸 점이 성과일 수 있다. 그러나 면담 일정 및 조사 현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미흡하여 당선작으로 선정할 수 없었고 가작으로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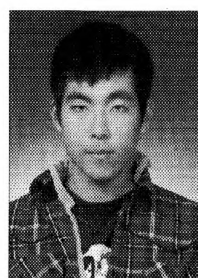
또 법학과 임진영 학생의 '제주 4·3항쟁과 여성인권'은 논문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최근에 관심을 두는 주제 의식을 나름의 방법으로 추적해간 관측은 논문이다. 푸코의 이론을 토대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을 문제 삼고 이를 4·3 사건 당시 여성의 인권 피해 현상으로 끌어 나가는 문제의식이 뛰어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전체에 해당하는 인권 현상을 여성 피해 사례로 논하거나, 자기의 견해와 인용 내용을 구분하지 않는 한계 때문에 가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

이창익(일어일문학과, 본사 주간교수)
김석준(사회학과 교수)
허남준(국어국문학과 교수)

※ 지면관계상 공동 가작을 수상한 '권당문화와 지방선거'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게재합니다.

권당문화, 제주의 다양성



송형일(사회교육 3)



고은주(사회교육 2)



이정민(사회교육 1)

제주는 다양성의 공간이다. 제주가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도 있지만, 제주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다. 또한 제주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권당문화라는 제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파평 윤씨 동족 마을의 독특한 투표형태

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제주가 가지는 또 하나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제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주에 대한 관심의 외연과 내포를 확장시켜 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벌써 커다란 것을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다. 현지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함께 해준 팀원과 훌륭한 팀원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을 바친다.



"애들아 새해에는 ~"

그들의 '복주머니' 같이 귀한 덕담

편집=강소진 기자



최치규(교무처장) 교수

나날이 변모하는 사회에서 의식 전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워 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모두가 경쟁사회에 있어 도전정신을 갖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학사를 운영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더욱 자기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



김민아·김민수 자매(일도이동 48·56)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또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옛말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희생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배려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 가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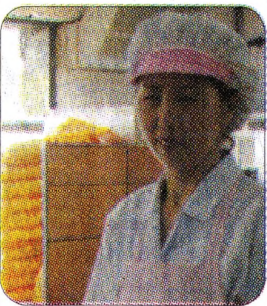
김정임·김명민 부부(일도이동 64·70)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된다. 우리가 그만 먹고 사치를 금하면 그만이지만 젊은세대는 입고, 바르고, 신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죽어라 일을 해야 돈이 남는 정도이니 우리는 터전만 있을 뿐 희망은 없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



송성태(대학원장) 교수

기후변화 새해를 맞아 구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새로운 대학발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제까지 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미진했었는데, 새해부터는 대학원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촉진됐으면 좋겠다. 학위취득명칭의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 대학원의 독립된 건물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영심(학생식당)

대부분의 학생들이 밥을 받을 때마다 방심방심한 얼굴로 인사도 잘 하고 맛있게 밥도 잘 먹어주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다. 다들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또한 학생식당도 자주 와서 이용했으면 한다.



김성태(아라캠프 교통관리원)

모두들 건강하고 올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바라지만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차츰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샌가 너희의 꿈과 맞닿아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부갑배(아라캠프 교통관리원)

다음 해부터는 사라캠프에서 근무하지 않을 거라 아쉬운 점이 많다. 부모님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은 학생들이 더욱 밝은 얼굴로 학교를 다녔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진승완(아라캠프 교학처)

요즘 경제가 어려워 우리들의 주머니가 우리들의 바람만큼 차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나의 주머니가 가득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한다. 새해에는 모두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하경태(캠퍼스 교지관리원)

새해에도 제주대 캠퍼스의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깨끗한 대학 캠퍼스 조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는 캠퍼스 이용의 편의를, 또 외부인들에게는 제주대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염미경(사회교육과) 교수

2009년도에는 지역사회와 경제, 정치적 등으로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다한다면 이러한 힘든 시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수미(아라캠퍼스 윤리교육 조교)

지난 2008년에는 열렬하게 생각하는 귀(子)와 같았다면, 이번 2009년에는 소(丑)와 같이 우직하고 묵직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임강석(부학생회장) 신지수(총학생회장)

학생회로서 2009년의 임기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약속한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이번 해에 제주대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Thomas Slater(외교관 강사)

학교가 점점 발전해나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도 세계의 질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라뮤즈홀이 특히 그러하다. 다만 제주대 구성원들이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낯설어 하는 것 같아, 좀 더 외국인 교수(서양문화권만이 아닌)들을 유치한다면 더욱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강경호(공무원직장협의회장)

2009년,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의 우직함으로 참고 기다린다면 희망이 있는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대학발전을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 특히 대학 정책이 대학에서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란다.



양석표(정문 편의점)

개인주의 사회로 변해가면서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려는 모습만 보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젊은 세대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웃어른과 친구에게 살갑게 대하는 대학생이 되길 바란다.



김진욱(영어교육과 2)

이번에 제주대가 제 3창학을 외치며 큰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에는 모두다 더욱 노력하여 제주대학교가 목표처럼 꼭 우리나라 20위 안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의 위상을 널리 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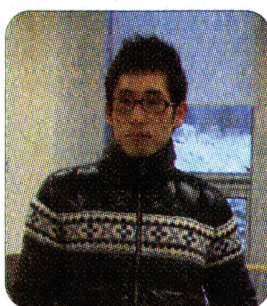
강병석(무역학과 2)

새해를 웃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의 웃음은 모두의 행복이 돼 우리가 하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듯이 2009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임윤규(수의학과) 교수

새해를 맞아 지난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위기를 수 있는 현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선생은 교육과 연구에, 학생은 공부와 사회봉사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장래를 생각하는 의미있는 2009년을 보내길 바란다.



강동운(아라캠퍼스 과학교육전공 2)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2008년도 어느덧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안주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자신의 목표에 열정,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쏟으며 앞으로 나아가자.



강남훈(사회학과 2) 고정현(인문홍보 2)

제주대가 전국 20위권에 드는 대학이 되기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정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2009년에는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제주대학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반복되는 작심삼일... '도전정신을 길러라'



연초가 되면 저마다 거창한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한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싶고, 꾸준히 영어 학원을 다녀서 높은 토익 점수도 받고 싶고, 이런 저런 자격증도 따고 싶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싶다는 등의 계획이다. 이렇게 새해라는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속을 희망으로 채우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러한 결심들이 곧 흐려지기 십상이다. 작심삼일, 왜 나의 결심의 유통기한은 단 3일 뿐일까? 계획의 유통기한을 늘려줄 방부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취한 계획, 성취하지 못한 계획

문지원(아라캠프 국어교육과 2) 학생은 지난 해에 새해를 맞으며 '외국으로 여행하기'와 '교환학생 되기', '좋은 것은 책 100권 읽기'와 '한문 1급 자격증 따기'의 네 개의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문지원은 여행이 성공한 계획은 '외국으로 여행하기'와 '교환학생 되기' 두 가지다. 이에 대해 문지원 학생은 "이 두 가지에 성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부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꼼꼼히 지원 날짜와 자격을 체크하며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따로 강습을 받았다"며 "과제가 많다 보니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내 게으름과 끈기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정(행정학과 2) 학생은 '토익 점수 높이기', '운전면허 따기'의 두 계획을 세웠다. 두 계획 모두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수정 학생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운전면허 시험이 힘들었고, 영어공부는 하려다 보니 시험기간이 다가와서 매년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를 좋아해서 열심히 시청하느라 놓친 점도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뚜렷한 목표와 실천계획만 있다면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하버드 MBA학생들의 목표 설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재학 시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은 전체의 3%, 목표는 뚜렷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13%를 차지했다고 한다. 후에 이에 따르면 그들의 졸업 후 수입을 조사해보니, 목표만 있던 13%는 나머지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3%는 나머지 97%의 평균수입의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목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의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자명하다.

-다섯 가지 실천 방향-

▷ 목표는 막연하지 않게, 기한을 정하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기한을 정해놓아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정한다.

▷ 주변 사람들과 목표를 공유하라: 자신의 목표를 주변에 알려 주변인이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한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 만나 함께 수행하면 좀 더 수행하기 쉬운 것이다.

▷ 과거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 과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하자.

▷ 목표달성에 수반되는 대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결정한다면 그것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가 없다면 성취도 없다.

▷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라: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마다, 그때그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면, 보상을 위해서라도 계획은 오래 지속된다.

▷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바라는 것이 확실하고 믿음이 변치 않으면 언젠가는 꿈이 현실이 된다는 이론이다.

작심삼일, 현재 나의 꿈은 3일 뿐이지만 노력한다면 3일은 30일, 30일은 300일이 될 수 있다. 단기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인생 목표를 설정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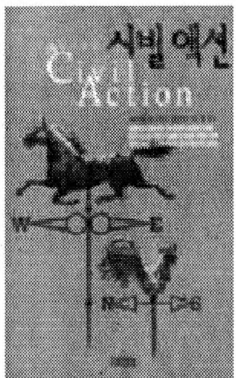
문지원 학생은 "올해는 '좋은 책 100권 읽기'라는 목표를 꼭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욕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수정 학생도 "미처 이루지 못했던 '토익 점수 높이기' 목표를 다시 이룰 것"이라고 말하며 "토익 학원을 등록해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수습기자

한권의 책

로스쿨 진학 추천 도서, 민사소송(civil action)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권할 만한 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펄쩍 뛰오르는 책이 있었다. 조나단 하(Jonathan Harr)라고 하는 기자 출신 작가가 쓴 "A civil action"이라는 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다. 예일, 하버드, 코넬, 듀크, 스탠포드 등 미국의 여러 로스쿨 신입생들이 입학 전에 미리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선정되기도 했던

책이다. 법에 대해 어렵게 설명한 책도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법적 지식이 필요한 책도 아니며, 더구나 법학자가 쓴 책도 아니다. 한 햇병아리 변호사가 거대 권력에 맞서 수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해 나가면서 겪는 아픔과 좌절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며,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다.

미국 보스턴 근교의 작은 공장 도시 워번에서 수 년간 어린이 8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주변 공장의 폐수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확인한 29살의 젊은 변호사 잰 솔릭만은 개인의 부와 명예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야망으로 이 사건을 맡는다. 8년간의 추적과 법정 싸움을 벌이며 나름대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엄청난 자본과 권력을 동원한 거대기업의 베테랑 변호사 앞에서 때로는 무력해지기도 하고 법에 대한 회의

를 느끼기도 한다. 감동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며 독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정의는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사의 윤리는? 앞으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미국처럼 변해갈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성공을 보증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도 더 변할 것이다. 변호사라는 업무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로스쿨에 진학해야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졸업 후에도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한번 해 볼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스스로를 "hired gun"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말로 하면 "고용된 총잡이"라

고 할까? 총 대신 법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고객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다. 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라. 화려해 보여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원해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여 성취욕을 느껴보고 싶어서? 제각각의 이유가 있을테지만, 나름대로의 확실한 이유 없이는 도전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로스쿨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천천히 서두르라"고 당부한다. 공부는 조금씩 할 필요는 없지만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일단 시작하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 학원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해보면서 언어이해력과 추리논증력을 키워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홍석모 법학과 교수

다시 듣고 싶은 에세이 - 최우수상 작품

"성실하고 창의적인 콜먼 교수는 교육자 본보기"



양선미 영어교육 4

생들이 다음 수업을 기대하게 하라

교수님은 매 수업시간에 실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는 활동을 꼭 준비해 오셨다. '언어와 문화' 수업은 역할극과 관찰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된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수님은 자원한 학생 두세 명을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교실 안의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사전에 교수님이 기획해 온 상황 설정에 따라 우리들이 자유롭게 연기하면 실험대상이 된 학생들도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연기자이자 관찰자로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배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오셨을까' 싶은 놀라운 기획력과 수업활동 아이디어는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배움 2) 학생들의 학습을 친절히 안내하고 격려하라

교수님은 수업과 과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셨다. 교수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쉽게 전하려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했는지 점검하셨고,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더라도 표정 한번 찡푸리시는 일 없이 은화하고 친절환 목소리로 거듭 부연해주셨다. 교수님의 일관되면서도 따뜻한 반응은 우리들이 교수님께 언제든지 다가가 질문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경계의 벽을 낮추어주고 사제관계를 돈독하게 해주었다. 교수님은 수업을 마치고 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기 초부터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셨는데, 우리의 메일에 대한 교수님의 답장은 빠르고 친절했다.

배움 3)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진전에 관심을 표현하라

학기 초 강의계획서를 보았을 때, 교수님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만이 아니라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행평가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수업마다 우리는 수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과제도 수시로 제시되었다.

하여, 교수님의 강의 두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고 있던 나를 비롯한 몇몇은 교수님의 두 수업을 소화해내느라 꽤나 부지런해야 했다. 하지만 그 상당한 과제량을 부담이라고만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과제 하나 하나에 대해 보여 주셨던 교수님의 관심에 있었다. 교수님은 두 수업을 통해 수시로 제출된 우리의 개별 그룹과제를 꼼꼼히 살피시고 어떤 점에서 잘 되었는지 코멘트를 담아 빠짐없이 돌려주셨던 것이다. 과제마다 주어진지는 교수님의 피드백은 기다려지는 편이었고, 교수님의 부지런한 감동할 만한 것이었다.

배움 4) 평가는 학기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이뤄지며 평가도 학습의 일부분이다.

교수님은 그룹과제로 학생들의 발표가 있기에 앞서 한 차시 수업 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평가표를

주어 어떤 점에서 평가가 될 것인지 명료하게 지침을 주셨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될 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다. 또한 평가과정에 학생들도 서술식 평가의 기회를 주어 교사로서의 평가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하셨다. 중간고사 후에는 모든 학생이 한 명씩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실에 찾아갔을 때 교수님께서 지난 중간고사의 논술이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시험 후의 피드백은 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철저하셨다. 친구들과 나는 아직도 문득문득 콜먼 교수님과 그분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회상하곤 한다. 그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채워졌던 수업중의 활동들과 성실한 수업준비, 풍부한 고도 즉각적이었던 피드백, 일관되면서도 다정했던 품격과,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습을 꾸준히 지원하시느라 그 많은 작업량도 감당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교수님처럼 일관성이 있어 신뢰로운 교육자, 성실하면서도 창의적인 그 면모를 배우고 싶다. 하여, 훗날 강단에 서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교육자가 되었으면 한다.

아라뮤즈홀에서 첫 공연이 될 '돈 파스쿠알레' 오페라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공연장 안에 들어서니 먼저 한겨울 밤에 난방을 충분히 켜고도 남을 멋진 분위기의 공연장과 굵은 낱새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꽉 채운 수많은 관객들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 속에 새로이 개관하는 아라뮤즈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 기대와 관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설립된 이 아라뮤즈홀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한 자랑스러웠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의 막이 올랐다. 첼로 연주로 시작된 오페스트라의 연주는 처음엔 다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점점 음악이 진행될수록 연주단원 본연의 기량이 살아나고 이준기 교수님의 무절

사설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라

나라 안팎이 참으로 어렵다. 경제는 10년 전으로 후퇴한듯하고, 정치는 20년 전으로 역행한듯하며, 사회는 30년 전으로 되돌아간듯하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젊음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그 사회에서 가장 패기가 넘쳐나는 곳이고, 시대의 나침반이다. 따라서 대학의 현재를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은 모름지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그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대학인연엔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에 바쁘고 교수들은 업적평가를 준비하느라 나라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대학인들이 잘못된 현실을 보고도 비판할 줄 모르고,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집단으로 되고 말았다.

오늘날 대학인들은 사회와 국가와 인류 등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다. 대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교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큰 명예를 부여받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회는 그들에게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사고를 하라는 목표를 주었다.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우리 대학 교훈(敎訓)이 진리, 정의, 창조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무릇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학문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에 비유된다. 진리란 참된 도리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반면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이다. 과연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사유체계의 최고 덕목은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최고 덕목은 정의이다. 한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면 수정되거나 배척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정의란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그리고 우리는 정의실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창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류역사가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의 피나는 창조적 노력 덕분이다. 더구나 지식산업사회인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창조적 사고이다. 대학에서의 자유는 창조적 사고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은 어학공부와 취업준비를 하느라 창의적 사고훈련은 뒷전이고, 교수들은 승진과 업적평가를 위한 성과물을 만드느라 독창적 이론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에선 자유가 강물처럼 넘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번득이는 창조적 사고를 쏟아내야 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대학생들이 패기가 없고, 교수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적은 별로 없었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지닌 곳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는 대학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해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앞날이 그리 밝지가 않다. 대학은 대학다워야 한다. 비록 정치·경제 상황과 어렵더라도 젊음의 패기와 지성의 기개는 살아 있어야겠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학인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어두운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한다. 진리, 정의, 창조, 이 세 덕목은 우리 대학 최고의 교육목표이다. 우리가 이 교훈에 충실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아라뮤즈홀 개관 기념 오페라를 보고

끊임없이 흐르는 음악과 열창...박찬 감흥 선사



김영남 영어영문 2

서 한 것 같으면서도 철저하게 계산된 지휘는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합연을 이끌어 점점 청중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배우들의 공연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으며 그 힘은 곧 청중을 때려눕혔다. 또한 배우들의 감정변화와 감정의 고조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정확한 순간과 타이밍에 적절한 하모니를 뽐내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작품 속 배우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한 공연의 깊이 있는 몰입을 더해 주었다.

나는 공연 중간 어느 새 볼펜을 지휘봉으로 하여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또 하나의 청중 속 지휘자가 되어 있었고 교수님만의 해석적이고 독창적 방식이 섞여 있는 훌륭한 지휘를 보면서 감탄사와 함께 비록 따로 음악을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놀랐고도 존경스러웠다. 비록 연극 중간에 긴장한 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혼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 한 순간의 공연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였는지 또한 그 순간에 완벽한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로 이 한편의 오페라는 모든 이들의 완벽에 가까운 집중과

혼신을 다한 열정이 고스란히 들어간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며 또한 모든 이들의 예술에 대한 열망과 바람이 집약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적인 배우의 열창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돈 파스쿠알레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교수님의 마지막 인상적인 타카토 식의 찌르기로 깔끔하게 공연의 막이 내렸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공연에 대한 축하며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 오페라도 박수를 치고 속으로 '브라보'를 연신 외쳤다.

이번 오페라는 앞으로의 내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중의 주인공으로서, 교양 있는 새 시대의 문화인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심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해지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며 문화와 예술적 식견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 공연들을 많이 접해야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았다.

끝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교수님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배우와 합창단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위대한 승리를 이룬 모두에게 브라보!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ark12@cheju.ac.kr, 홈페이지 http://cnpupress.cheju.ac.kr

독자기고

지금은 희망을 이야기 할 때다



이호령 (언론홍보 2)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매년 끝자락에서 말하길, 지난 한해를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말하며, 새로운 한 해에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매년 나오는 이런 말이 식상함이 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새해가 주는 희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것 같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유독 이 시기에는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한 다거나, 운동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만큼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리고 고달팠던 사람들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사람들도, 각자 꿈을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심는다.

우리 대학교도 11번경과 교대 통합 1년이 남긴 과제. 곧 있을 총장 선거와 국립대학의 정부 지원 중단 및 법인화 문제, 등록금 동결과 아라뮤즈홀 개관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다.

2009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때보다 참담할 수도 있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희망을 이야기할 때다. 혹시 아는가. 올해의 끝자락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2009년이었으며 내년에도 올해만큼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나올지.

희망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 중, 가장 고귀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UI BASIC SYSTEM

심볼마크



J	JEJU
flame symbol	행복, 정의 (조목 - 영구 - 봉사)
U	University
book symbol	학문, 진리, 탐구
1952	개교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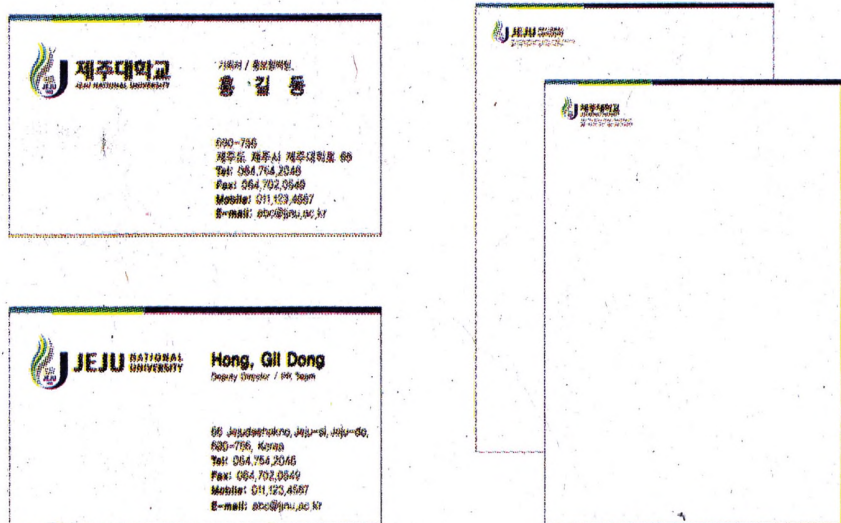
로고타입



기본마스코트



서식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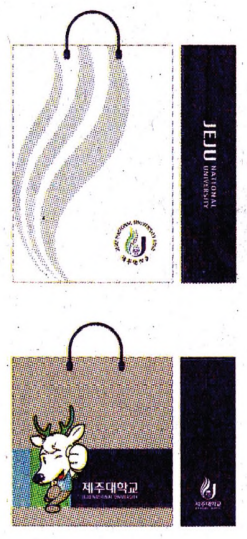
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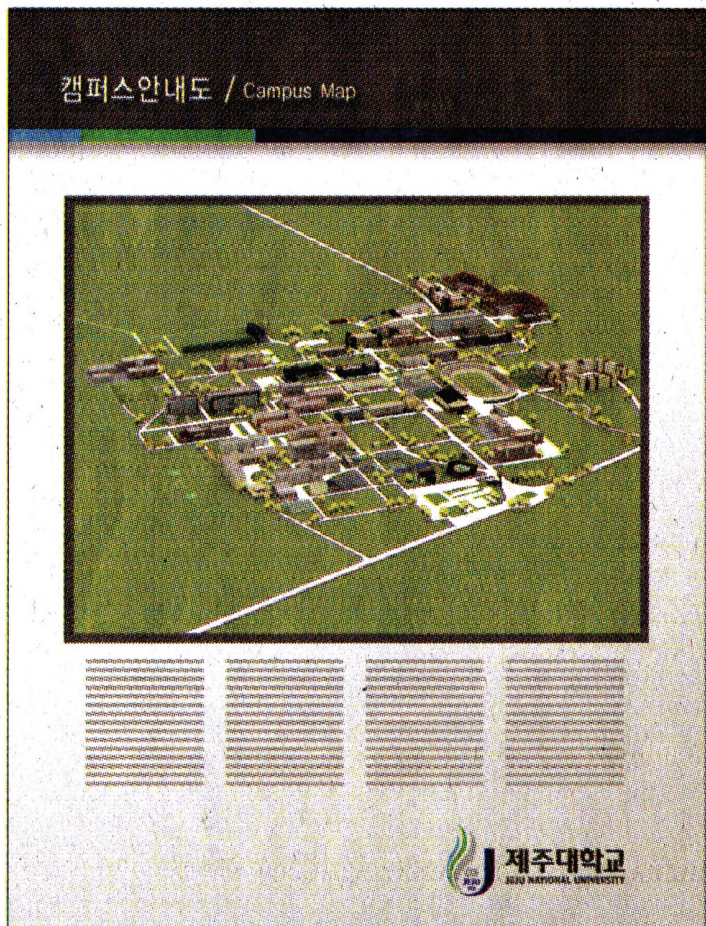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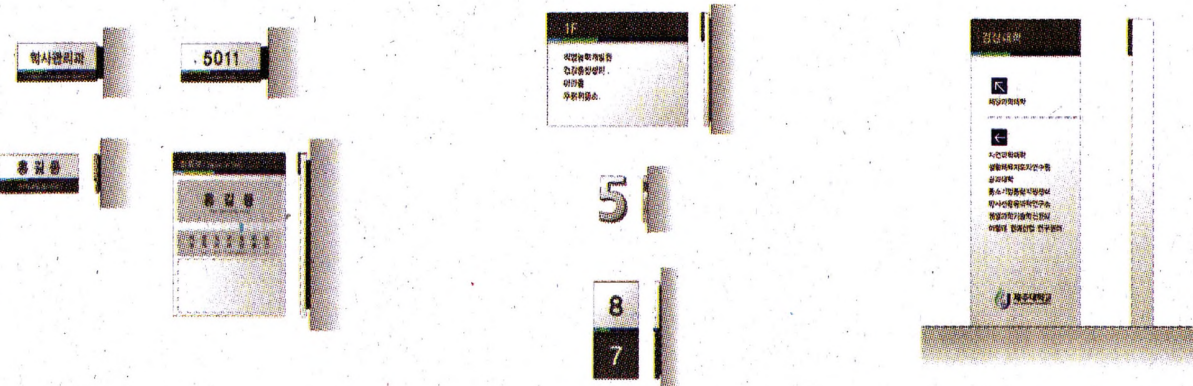
티셔츠 / 수건



종이가방



사인류



대한민국 No.1 유동 금융기관

NH NongHyup

다출산 장려표어

우수작 알림

제주농협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저하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제주사회 저변에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다출산 장려운동 표어 공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아이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시작됩니다!

Jeju 아이사랑행복카드

1등

아기들의 웃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소리

최우수

아이하나 더 낳으면 제주도민 백만원다

사랑으로 낳은 아이 함께하는 행복국민

장려

기쁨주는 우리아이 커져가는 가정행복

엄마들은 사랑의 샘 다져내는 행복의샘

입선

- 알뜰살뜰 우리아이 행복 한일 기쁨 두일
- 함께하는 출산양육 젊어지는 희망제주
- 피어나는 출산문화 보장되는 밝은미래
- 아이많은 웃음소리 경쟁력있는 희망제주
- 알뜰살뜰 키우는 재미 천하제일 나의 인생
- 희망찬 미래! 형이랑 누나랑, 제기 함께 만들어요
- 낳기 전에 걱정대신 낳아보니 행복가득
- 자식없는 부유한 꿈을 자식없는 쓸쓸한 노후
- 나의 인생 나의 행복 아이들과 함께 해요
- 기쁨으로 낳은 자식 미래에는 효자효녀

참가

- 방방곡곡 애기들을 활짝피는 우리경제
- 복지는 우리고실 골짜기는 우리경제
- 오늘은 낳지 않지만 내일은 낳지 못합니다.
- 활소고집 아이하나 부모형제 물려받다
- 미려보림 따르었다 다출산이 보장보험

※입선을 제외한 입상작에 대해 도민 반응도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문의 : ☎720-1222

진정한 지역은행

제주농협